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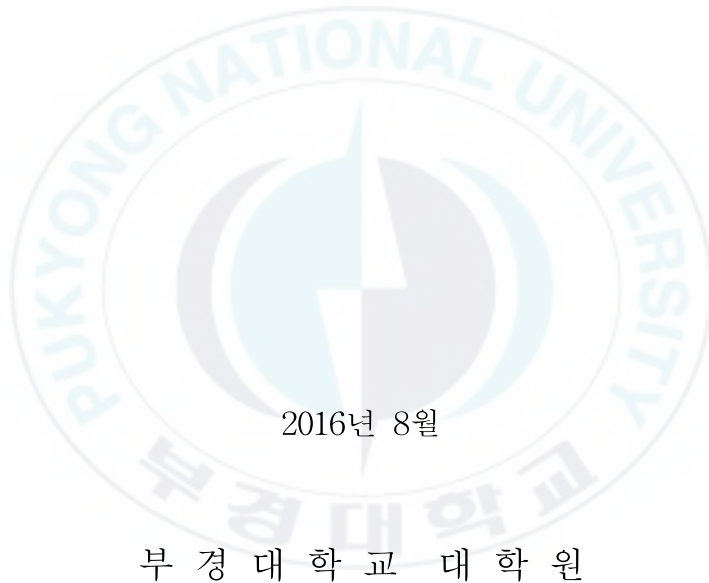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신문방송학석사학위논문

근대잡지를 통한 계몽
-중국과 한국의 비교연구



2016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신 문 방 송 학 과

LIU MINGXIN

신문방송학석사 학위논문

근대잡지를 통한 계몽
-중국과 한국의 비교연구

지도교수 김영환

2016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LIU MINGXIN

LIU MINGXIN의 신문방송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8월

주 심 철학박사 김무규 (인)

위 원 문학박사 남인용 (인)

위 원 철학박사 김영환 (인)

목차

I. 서론	1
-------------	---

II. 본론

제1장『소년』과 최남선	6
1.근대 “소년”과 “청년”	6
2.『소년』의 창간과 계몽	10
3.최남선와 신체시	16
4.근대 잡지『청춘』의 계몽성	25
5.『청춘』중 근대적 인간의 내적 가치	30

제2장 『신청년』과 진독수	33
1.『신청년』의 창간	33
2.『신청년』과『安徽俗话报』	36
3.『신청년』의 계몽성	40
4.백화문 운동에 호적의 언문일치론	42

제3장 『소년』,『청춘』과 『신청년』비교	62
1.서구문명에 대한 태도 비교	62
2.전통 비판	65
3.『소년』,『청춘』과『신청년』이 후대의 문화 운동에 미치는 영향 비교	67

III. 결론	70
---------------	----

참고문헌	74
------------	----

Enlightenment through by Mordern Magazine-A Comparative Study of China and Korea

Liu ming xin

Department of Mass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Enlightenment is thought indispensable part of the process of the advancement of humanity and society.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of China and South Korea can be seen that the impact on the national and enlightened nation great. Modern China and Korea have many similarities in many ways. Culture, social system at the time of the social environment and so on.

The biggest point similar to the two countries by promoting enlightenment to the people, such as through the magazine Modern new knowledge, scientific thought, then thought to participate in the democratic patriotic enlightenment movement. Choe Nam-seon has launched a 『소년』 Korea's first modern Enlightenment magazine in 1908. Jindoksu has launched China's first magazine enlightened 『신청년』 in 1914. Korea and China have made such a modern magazine mainly New Intellectual layer.

In the first issue of the magazine's lifetime you can see a lot of similarities. Lotta is also similar to the magazine's content is similar to what the best attitude to Western civilization. 『신청년』 and 『소년』 had sinsasang promote

new knowledge and translating it to the people of Western civilization. The difference was mainly a difference in criticism and tradition influence the comparison. 『신청년』 had criticized Confucianism and Confucian thought from the beginning. And it had also participated baekhwamun movement to promote journalism. Choe Nam-seon is made the chief form journalism that was critical of the tradition, but was not explicitly expressed.



I. 서론

계몽은 봉건적 구습, 종교적 전통에 의한 무지, 미신, 도그마에 지배당했던 민중의 몽매를 자연의 빛, 즉 이성에 비추어 밝히고 자유사상, 과학적 지식, 비판적 정신을 보급하고, 인간의 존엄을 자각시키는 것이다.

세상에서 모든 만족과 나라 다 봉건 사회부터 근대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성을 발양하는 것을 통해 봉건주의를 비판해서 사람들의 관념과 사상을 해방하기 위해 촉진시키는 시간을 있어야 한다. 중국은 근대에도 같은 시기를 지냈다. 중국과 한국 계몽 운동 중에 많은 계몽 대표인물 나타났으며 수많은 계몽성이 있는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잡지도 같이 나왔다. 예를 들어 『新民說』 『新青年』 『청춘』 『소년』 등 우수 계몽 잡지 있다. 만약에 계몽사상이 봉건사회에 근대 민주주의로 통하는 가이드자면 자강 자립 과학 민주를 위해 홍보하는 잡지들 다 근대 사회로 통하는 계단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잡지가 계몽운동 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국과 한국의 계몽 운동을 통해 알 수 있다.

중국 근대사회 민국의 초기에는 정치적 불안 계속되고, 그 당시 원세개의 제제 운동 움직임과 공자를 존중하는 복구 사조가 일어나고 있었다. 더 나아가 베이징 정부가 공개적으로 하늘과 공자묘에 제사를 올리는 현실은 신지식인들의 불안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일부 신지식인층이 반봉건적인 계몽 운동, 즉 신문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신문화 운동은 광의로 보았을 때 그 시작은 진독수가 『신청년』을 창간한 1914년부터이며, 종료된 것은 『신청년』이 정간된 1923년까지로 보고 있다. 협의로는 진독수가 북경대학의 교수로 부임하여 『신청년』의 편집인이 북경에 있을 때부터 1917년에서 1921년 중국 공산당의 창당까지로 보고 있다. 그

리고 1919년 5.4운동을 경계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고 있다. 그 내용은 주로 두가지 '민주(民主)'와 '과학(科學)'으로 봉건 제도와 미신 관념을 반대한 것이다. 진독수는 『신청년』의 창간호 「청년에게 고함」이라는 글에서 청년들에게 자주적·진보적·세계적·실리적·과학적인 청년이 되라고 하였다. 과학뿐만 아니라 민주를 제창하기 위해서 유가(儒家) 학설과 공자를 존경하는 사상을 비판하고, 과학을 제창하기 위하여 세계의 저명한 자연과학자의 발명과 업적을 비롯하여 『물중기원』과 의학 등 여러 분야에 관한 지식을 『신청년』에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예법, 예교, 정절, 구윤리(倫理)와 구정치(政治)를 반대하여 덕(德, 데모그리시-민주) 선생을 옹호하였으며, 구종교·구예술·구文學에 반대하며 색(賽, 사이언스-과학) 선생을 옹호하였다.

『신청년』의 창간호는 청년 잡지였다. 호적(胡適)은 「문학 개량주의」를 『신청년』에 발표하여 문학 혁명, 즉 백화 문학을 제창하였다. 이는 한문인 문언문을 반대하고 구어체의 백화문 쓰기를 제창한 것으로, 구문학을 반대하고 신문학으로 전환을 의미하였다. 진독수도 「문학 혁명론」을 발표하여 기교적이고 귀족 문학을 버리고 편이한 국민 문학을, 진부한 고전 문학을 버리고 신선, 성실한 사실 문학을, 애매모호하고 난해한 산림 문학을 버리고 명료하고 통속적인 사회 문학을 제창하였다.

그리고 노신은 백화문으로 『광인일기』 『아Q정전』을 지어 광인과 아Q의 입을 빌려 중국 유가의 인의, 도덕과 권력에 맹종하는 구사상을 비판하고 반대하였다. 이 기간에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특히, 호적과 이대조는 '문제와 주의'¹⁾ 논쟁을 펴 마르크스주의

1) 호적과 이대조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호적은 그 당시 사회문제에 관심 좀 많이 갖자라는 주장이며 주의라는 말을 좀 그만하자는 반면에 이대조는 불세비키주의를 옹호하면서 문제와 주의는 같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를 선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신청년』에서 이 밖에도 ‘중서 문화 논쟁’과 ‘과학과 현학의 논쟁’이 일어나, 사상적으로 신사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간접적으로 마르크스주의를 더욱 확대 선전하였다.

『신청년』의 영향을 받아 각 지방에서도 청년들에 의하여 자주적인 사상운동을 전개한 단체가 나타나고, 『신조(新潮)』 『매주평론(每週評論)』 『성기평론(星期評論)』 『상강평론(湘江評論)』 등 잡지가 나왔다. 그리고 존 듀이(John Dewey)나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 등 세계의 석학을 초청하여 전국을 순회하는 강연회도 열었다. 한편, 여성을 해방하자는 소리도 높았고, 사교·연애·혼인 등에서 자유가 없었던 중국 여성들에게 남녀 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실현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자고 주장하였다.

근대 계몽 잡지 중에 『신청년』 뿐만 아니라 『소년』도 대표적인 잡지다. 『소년』은 한일 강제 합병 이전 1908년 11월1일자로 창간된 잡지로, 강제합병 직후 1911년1월 통권 23호로 강제 폐간 당했다. 이 잡지는 당시 18세의 소년 최남선(崔南善 1890~1957, 호 육당)이 주재하여 큰 화제가 되었으며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최남선은 일본 와세다 대학에 유학중이던 1906년 학생 모의 국회의 토의 안건²⁾이 문제가 되어 조선인 학생 70여 명이 동맹 퇴학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남은 학비로 인쇄 기구를 구입하여 귀국한 뒤 ‘신문관’을 차리고, 이 잡지를 간행하였다.

『소년』 잡지 이름의 뜻이 과 『신청년』 잡지 이름의 뜻이 어느 정도에 공통점이 많다. 「창간사」에서 이 잡지의 창간 취지를 읽을 수 있다. 청년은 새 시대의 주역이었다.

2) 1906년6월 와세다대학에서 개최된 모의 국회에서 경술국치 문제를 의제로 내걸자 격분한 일군의 한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이 대학교를 자퇴하고 귀국하였다.

나는 이 잡지의 간행하는 취지에 대하여 길게 말씀하지 아니하리다. 그러나 한마디 간단하게 할 것은. “우리 대한으로 하여금 소년의 나라로 하라! 그리하려 하면 능히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그를 교도하여라.” 이 잡지가 비록 작으나 우리 동인은 이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으로 힘쓰리라 소년으로 하여금 이를 읽게 하라. 아울러 소년을 훈도하는 부형으로 하여금 이를 읽게 하여라.³⁾

청년의 기대가 어떠함이오

-의의 없는 삶보다는 편안히 유의할 죽음을 취할지어다

청년은 사회의 생명이요 사회의 동력이라. 청년의 진취적 기상과 희생적 정신에 충실하고 풍부하면 그 사회는 장차 번영과 광영에 눈부신 광채를 발할 것이오. ……조선 민중 억만대의 광영을 위하여 우리의 가난과 박해와 기아와 추위가 필요하다면 아! 우리의 안일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따듯하고 배부름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구구한 애정을 버리는 것이 헌신짝 버리는 것과 다른 바 있으리오.⁴⁾

지리적 접근성과 문화의 공통성 때문에 중국과 한국은 근대 계몽운동 중 공통점이 많았다. 근대 시기에 한국과 중국 다 열강에 침략을 많이 받았고 국가가 망할 뻔했었다. 신지식인들이 국가 민중을 위해 신문화 신사상을 홍보 하면서 사람들이 국가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이 국가를 구하는 애국 운동에 참가하기도 했다. 사상과 문화 홍보는 한 나라의 계

3) 최남선 『소년』 「창간사」

4) 『동아일보』 1922년1월 9일.

몽 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주로 중국과 한국의 초기 근대 잡지를 연구해서 양국 계몽 운동의 공통점과 차이점 찾아내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디에서 오는가도 생각해 보려고 한다.



II. 제1장 『소년』과 최남선

1. 근대 “소년”과 “청년”

소년과 청년이 다 젊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 그러데 젊은이를 가리키는 표현은 시대마다 달랐다. 젊다 또는 어리다는 뜻의 한자로는 ‘약(弱)’이나 ‘소(少)’가 있다. 그래서 약년이니 소년이니 하는 말들이 젊은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젊다는 뜻으로 연소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고, 앞의 정약용의 시에서처럼 요즘과 달리 소년이 젊은이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호칭이었다. ‘어린이’에 해당하는 연령대를 아이-한자로는 동몽이나 동자라고 하였고 소년이라는 말은 십대 후반부터 이십대까지 젊은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또 소년 외에 ‘제자’라는 말도 자주 쓰였다. 소년이 주로 나이를 기준으로 장년, 노년과 구분하여 젊은이를 가리키는 말이었다면, 자제는 부형과 구분되는 다음 세대를 가리킨다. 그런만큼 자제는 교육받는 다음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청년’은? 청년이라는 말이 전통시대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청년의 용례는 아주 드물었고, 그조차도 젊은 사람이나 젊은 세대의 의미가 아니라 형용사적으로 ‘젊은’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거나(예를 들어 젊은 과부를 청년 과부라 하였던 것), ‘젊은 시절’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소년이나 자제와 같은 말들이 정확히 인생의 어느 시점까지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달랐다. 오늘날과 같이 연령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 연소

한 사람들을 구분했기 때문이다. 또 연륜을 존중하는 정통적인 농경사회에서 젊다는 것은 대체로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뜻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구 문물이 물밀 듯 들어와 근대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전통적인 젊은이관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오늘날 젊은이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인 청년은 일본에서 근대 서구의 청년, 즉 young man이 번역어로 등장하였다. 1880년 일본의 초기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고자키 히로키치가 YMCA를 기독교청년회로 번역한 이래 일본에서는 '세에넨'이 젊은 세대를 일컫는 일반적인 말로 정착하였다. 한국은 사람들이 '청년'을 사용하게 된 것은 1896-1897년경이다. 1896년 도쿄에 유학 중이던 관비 유학생들이 대조선유학생친목회라는 모임을 만들고 『친목회회보』를 발간하였는데, 이 잡지의 3, 4, 5호에 일본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의미로 청년이라는 말을 사용한 글들이 게재되었다. 국가 안에서는 기독교회가 청년회를 조직하면서 처음 근대적 의미의 청년이라는 말을 도입하였다. 1897년 감리교의 여러 교회에서 '웹윗청년회'를 조직하였던 것이 시초였다.⁵⁾

최남선 (1890년 4월 26일~1957년 10월 10일)은 대한민국의 문화 운동의 가이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남선은 대한제국의 국비 유학생으로 일본에 유학을 갔으나 중퇴와 복학을 반복하다가 1907년 와세다대학교 재학 중 동맹 휴학 사건으로 퇴학당하고 귀국했다. 이후 1907년 이광수와 함께 소년지를 창간했으나 한일 합방후 일제의 압력으로 폐간당했고 1912년 이광수의 도움으로 『붉은 저고리』, 1913년 『아이들 보이』, 『새별』 등의 잡지를 발간하였으나 조선 총독부의 "신문지법" 명령으로 모두 강제 폐간되었다. 1914년에는 잡지 『청춘』을 발간했으나 1918년

5) 이임하, 이기훈, 최규진, 허수, 송찬섭 『근현대속의 한국』(2007) 51-53쪽

일본의 압력으로 폐간 당했다. 1919년 3.1만세 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또는 민족대표 49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고 기미독립선언서를 작성 낭독하였다. 3.1운동을 사주한 혐의로 투옥되었다가 1921년에 석방되었다. 1922년 동명사를 설립하여 주간 잡지 『동명』을 발행하였고 1924년 「시대일보」를 창간, 사장에 취임했으나 자금과 총독부의 압력 등으로 폐간. 1925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논설위원을 지냈다. 1927년 총독부의 연구비와 생계 지원 유혹으로 조선사편찬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친일 성향으로 전향하여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친일 행적은 적극적 친일이 아니라는 반론이 1950년대에 장준하 등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1957년 10월 10일 뇌일혈로 별세한 그는 일제 강점기 시대 동안에 이광수, 홍명희와 더불어 조선의 3대 천재로 알려졌던 인물이다.⁶⁾

육당 최남선이 1908년 19세의 소년으로 한국 최초의 종합 교양지라 할 월간지 『소년』을 창간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 1904년 10월 16살의 어린 나이에 황실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으로 건너간 육당에게는 자신의 공부보다는 당시 암담했던 국가가 걱정스러워 東京府立第一中學에 입학하였으나 석 달 만에 자퇴하고 1905년 1월 귀국하였다. 동경과 서울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문화적인 차이가 컸었던 것을 스스로 직감하고 고국에 들어오게 된다. 먼저 일본 도쿄의 거리에서 최남선이 만난 것은 책과 잡지의 문화였던 것이다. 책으로 말하면 일본보다 인쇄나 제지술이 조선이 앞서 있었겠지만 서구문물을 일찍이 받은 일본 출판의 양장본이라든지 잡지문화를 접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최남선은 15세의 소년 시절 일본말을 배우고 일본 책을 부러워하던 차에 일본에 건너가서 그들의 문화에 접하게 되었던 일을 기관지였던 『새벽』의 뒤를 이은 월간 『기러기』에 다음과 같이 회고해 놓고 있다.

6) 국어국문학자료사전 NAVER 위키백과

15세 때에 일본 신문을 통해서 일본말을 알게 되고 아는 대로 일본 책을 모아서 보았다. 그 때 서울에서 볼 수 있는 일본 책은 몇 군데 관립 학교에서 교과서로 쓰는 종류가 있을 뿐이었다. 하나는 관립학교에서 초등산 수를 가르치는 수학 교과서고 또 하나는 관립학교에서 일본 의학 책을 번역해서 교과서로 쓰는 내과학, 해부학과 같은 종류였다. 나는 이 두 가지를 얻어 보고 신기한 생각을 금하지 못해서 산수 문제와 해부학 명사 같은 것을 낱낱이 기억하기에 이르렀다. 15세 되던 해에 노일전쟁이 일어나서 한국에 있는 일본 세력은 아라사를 대신하고 그해 10월에 한국 황실로부터 유학생 50명을 일본 정부에 위탁할 때에 나도 그 중의 한사람으로 끼어 갔었다. 일본에 이르러 보니 문화의 발달과 서적의 풍부함이 상상 밖이고 그 전의 국문 예수교 서류와 한문 번역서적 만을 보던 때에 비하면 대통으로 보던 하늘을 두 눈으로 크게 뜨고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이였다. 나는 그런 책이란 것은 다 좋아서 보고 또 한편으로는 번역까지 하는 버릇이 일본 가서 더욱 활발해졌다. 그 때는 이런 공부로 밤잠도 자지 않고 정신을 썼다.⁷⁾

이러한 일본의 문화와 학문에 대한 열망은 그로 하여금 일본으로 향하게 한다. 자신의 사비로 1906년 3월 두 번째 일본 유학의 길에 오른다. 일본에 건너간 그는 동경의 와세다대학 고등사범부 지리역사과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와세다대학에서 개최된 모의 국회에서 경술국치 문제를 의제로 내걸자 격분한 일군의 한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대학교를 자퇴하고 귀국하였다. 그 당시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감정이란 참기 어려울 만큼 참담했다. 1895년 을미년 일인에 의한 명성황후의 시해사건의 참변을 겪었던 때의 최남선의 나이가 여섯 살이었고 1905년 11월의

7)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육당全集편집위원회, 「論說·論文」, 『육당 최남선全集』, 제10권 (1974)

‘을사의 국난’을 당했을 때에는 최남선은 민족의 울분을 달래려고 몇일 동안 두문불출하기도 했다. 그 후 일본을 더 알고 싶어 그 곳에 건너갔으나 최남선이 그들의 품에서 잠시도 건드릴 수 없게 운명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나 최남선의 꿈은 기어코 그들을 따라잡아 보려고 동경 秀英社에서 인쇄기기를 사 가지고 돌아와 바로 1907년 여름 출판사 겸 인쇄소인 신문관을 개설하고 일본 동경에서 『대한유학생회보』 편집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출판과 잡지의 발행을 구상하게 된다. 마침내 19세 소년의 당찬 꿈은 한국 최초의 종합지라 할 『소년』을 창간하게 된다.⁸⁾ 잡지는 자본이 적어도 가능했고 한 사람이 자기 주장을 펼치는 데 신문보다 유리한 점이 더 많았다.

2. 『소년』의 창간과 계몽

『소년』지 발간 취지문에서와 같이 최남선은 소년과 그들의 부형이 함께 읽을 것을 전제로 1908년 11월 1일 자신의 출판사 신문관을 통해 『소년』지를 창간한다. 책의 크기는 국판으로 창간호는 모두 90쪽으로 편집되었으며 발행인은 최남선의 실형인 최창선이었으나 실제로는 모두 최남선이 직접 편찬을 주관했었다.

『소년』창간호가 말해 주듯이 이 잡지는 오늘의 소년이 아니라 당시의 청장년 지성들이 모두 함께 읽게끔 편집되어 있다. 그것은 최남선이 일본에서 느낀 너무나 되떨어진 우리 민족 청년들의 계도를 목적으로 시도한 야심에 찬 집념의 첫 표출이었다. 『소년』이 창간됨으로써 당시 기관지 일색이었던 지난날에서 벗어나 비로소 잡지가 대중과의 매스 커뮤니

8) 全泳杓 (2004) 육당 최남선의 출판행위와 『소년』지 연구 出版文化學會報 《出版雜誌研究》 第十二卷 第一号 通卷 第十二号

니케이션의 매체로 독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한국 잡지사는 하나의 신기원을 이룩하게 된 것이다. 한국 민족사는 1900년대를 맞으면서 일본 등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한 문화 계몽이란 개화의 과제를 가지게 되었다. 학술·문화의 후진성은 정치적 불행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를 극복기 위해서는 국민 개화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 선각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문화 계몽 운동의 필요성은 먼저 잡지를 통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먼저 과학 이론과 수리 사상 등 새문명을 알리고자 『數理學雜誌』가 유일선에 의해 1905년 12월에 창간이었고 그 이듬해인 1906년 6월에 『가뎡잡지』가 창간, 신생활 운동으로 국민계도에 앞장섰다. 廣學書鋪에서 신채호에 의해 월간으로 발행된 국판50명 안팎의 이 『가뎡잡지』는 재정이 어려워 몇 호 발행하지 못하고 휴간했으나 다시 1908년 1월5일에 속간호를 내었으나 곧 문을 닫고 만이다. 초기의 잡지들이 협회나 학회의 기관지나 다름없었던 ‘회보’ ‘월보’라는 이름을 붙여오던 것을 월간지가 ‘잡지’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한국 잡지사상 최초로서 그 용어부터 신문명의 도입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06년 11월1일에는 양재건, 조진태, 이인식, 이해조 등에 의해 소년을 위한 월가 『소년한반도』가 창간되었으나 겨우 통권6호로 폐간되었다. 이 『소년한반도』는 ‘대한 제국의 독립 기초와 자유정신과 평등주의로써 국민의 뇌수를 자양하는 신경 요소요, 교육계의 학리를 발명하는 해상의 등대’라는 발간 취지문에서처럼 독립 정신과 신문화에 대한 계몽주의를 표방했던 교양지의 성격을 지닌 종합지였다. 바로 이보다 2년 뒤 최남선이 『소년』 잡지를 창간하게 되는데 체재나 내용면에서 지난날의 잡지와는 달리 혁신적으로 편집되었다. 권두에 실린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비롯하여 ‘소년시언’ 등의 내용은 국민독자들의 정신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다.

立志! 뜻을 세워! 선 기둥이 없이 집이 지탱치 못하고 선 돛대가 없이 배가 가지 못하고 선 지축이 없이 지구가 돌지 못하니 사람에게 선 뜻이 없이 어찌 지낼 수 있으며 또 어찌 일을 이룰 수 있사오리까.⁹⁾

이처럼 창간호의 ‘소년시언’ 난에서도 최남선의 국민 계도에 대한 집념을 읽을 수 있다. 이 『소년』 잡지의 창간호에는 집필자가 없는 것이 특색이었는데 이는 당시 19세의 최남선이 혼자 원고를 작성한 것이라 믿어진다. 창간호의 ‘거인국 표류기’도 ‘영국 스위프트 원저(「쩔너버 旅行記」 하권)’란 부제만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최남선 자신이 일본에서 발행되어진 책을 번역하여 옮겼던 것이다.

이 잡지의 발행인은 최창선으로 되어 있으나 최남선이 직접 편집을 주관한 것이라 보아진다. 국판 체재의 이 『소년』은 한말까지 20호가 발행되었으며 韓日合邦후 3호가 더 발간되어 1911년 5월호로 통권 23호의 짧은 잡지나이로 기록하게 된다. 이는 당시 일제의 탄압은 청소년 계도를 위한 잡지를 막으려는 심한 원고의 검열 탓이라 보아진다. 일본 총독부는 한국의 완전 식민지를 꾀하려는 언론 장악의 목적으로 먼저 1907년과 1909년에 걸쳐 ‘신문지법’과 ‘출판법’을 만들어 당시 신문·잡지·출판물의 통제 수단으로 삼았던 것은 지난날의 한국 언론사가 잘 말해 주고 있다.

오래 우리가 경론하여 오던 소년을 위하는 잡지는 되나 못되나 슬금슬금 해볼 차로 신문관으로 이를 발하게 하여 겨우 이달부터 내게 되었소.¹⁰⁾

이와 같은 『소년』 잡지의 편집 후기는 신문관의 창립 이후 1년이 지나서야 겨우 창간호를 발행하게 되었음을 실토하고 있다. 물론 잡지 창간

9) 최남선 「소년시언」

10) 최남선 (1908) 「編輯室通寄」 『소년』, 창간호 편집후기

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당시 일본이 만들어 놓은 출판법에 의한 등록 잡지는 원고를 총독부에 제출하여 검열을 거쳤기 때문에 출판의 어려움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따라서 『소년』 잡지의 발간 호수는 창간한 다음 해인 1909년에 통권 12호(7월,12월 결간)가 나왔고 1910년에는 9월호, 10월호, 12월호의 결간으로 통권 21호를 발간했다가 1911년 5월까지 2호를 더하여 창간 후 4년 동안 모두 통권 23호를 발행하고 강제 폐간당하고 말았다.¹¹⁾

그 당시 환경 때문에 어떤 영리 목적이 아니라 흥미했던 시국과 불안한 국운을 회복키 위해 잡지를 발행했던 최남선의 큰 뜻이 일제하에서 꺾였지만 최남선은 다시 1913년 1월1일 어린이들을 위한 잡지 『붉은 저고리』를 매월 두 번씩 1일과 15일에 발행했었다. 이 잡지는 타블로이드 크기 2면의 신문 형태의 체재였는데 그해 6월 15일 총 12호로 끝을 맺고 말았다. 이 잡지의 종간에 끝이어 1913년 4월과 9월에 각각 창간된 『새별』과 『아이들보이』의 잡지를 탄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새로 간행된 잡지는 모두 국판 크기의 월간지로서 국민 계도의 문화 운동과 국권 회복을 위한 어린이 중심의 교양지였다. 그러나 『아이들보이』는 1914년 9월5일 지령 13호로, 『새별』은 1915년 1월 통권 16호로 끝내게 된다¹²⁾. 최남선은 또 1914년 10월1일 새로운 종합 교양지인 『청춘』을 창간하게 된다. 출판사 신문관에서 최창선의 이름으로 발행된 국판 크기의 월간 『청춘』은 ‘어린이 꿈’을 권두시로 실고 있듯이 자라는 청소년에 대한 최남선의 깊은 뜻을 담고 있다. ‘아무라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욱 배워야 하며 더 배워야 합니다.’로 시작하는 권두언은 잠자고 있던 이 나라의 청소년들을 일깨우려는 최남선의 정신이었다. 창간호는 빅토

11) 정진석 (2001) 「역사와 언론인」, 366쪽

12) 최덕교 (2004) 『새별』지의 창간 연도에 대하여서는 실물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 연구자마다 의견이 각각임. 48쪽

르 위고의 「너 참 불상타(Les Miserables)」를 번역한 36쪽과 65쪽의 ‘세계일부가’를 악보와 사진, 삽화를 곁들여 모두 101쪽의 ‘특별 부록’을 권말에 붙여놓은 획기적 기획으로 한국잡지 부록의 호시(嚆矢)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소년』 잡지는 춘원의 단편문학 작품을 싣는 등 교양지로서의 완벽한 종합적인 편집을 했었다. 이처럼 문학을 비롯하여 자연, 위인전, 외국 정황등의 소개는 당시의 청년들의 눈을 뜨게 했던 완벽한 종합 교양지의 체제이었다. 특히 최초의 신체시인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선보이는 등 신문학 초창기에 남긴 우리의 문학사적 공헌은 지대한 것이었다. 이 『소년』 잡지는 그 후 『청춘』잡지와 더불어 『創造』, 『廢墟』, 『白潮』 등 순문에 동인지가 나오기 이전까지 과도기적 문학지의 역할을 맡아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최남선의 『소년』 잡지 창간의 공적을 육당 연구가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묶어 말하고 있다.¹³⁾

첫째, 그가 일본 유학의 끝을 맺지 못하고 귀국한 것은 무엇보다도 잡지 문화를 수립하겠다는 염원의 표시였으니 잡지의 사명이란 곧 독립 쟁취의 길이며 무지몽매한 대중을 계몽 교육하는 데 있던 것이다. 이리하여 우선 나라의 기둥인 어린이부터 계몽 교화할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잡지를 펴낸다는 점이다. 외세의 침략과 혼매한 시국과 불안한 국운을 회복하기 위한 민족적 대사업을 19세 소년 단독으로 이루었다는 사실에 자못 큰 의의가 있다.

둘째는 그가 근대 문학 창조에 남긴 공헌이다. 최남선은 『소년』 잡지를 통하여 새로운 근대 문학을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학의 문호를 열려는 의도로 『소년』 잡지를 편집하였다. 이 잡지의 문학 작품이 거의 최남선, 이광수 등 두 사람의 전담으로 메워졌음을 볼 때 그가 한국 신문학사상 끼친 영향은 실로 큰 것이었다. 『소년』 잡지에 발표된 그

13) 백순재 (1974) 「대한자강회보와 소년지 한국잡지 70년」 247쪽

의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는 한국 자유시 형성에 새로운 터전을 닦아 놓은 것이다. 더욱이 그가 언문일체의 문장을 확립하여 앞으로의 문학 활동에 새로운 길을 열어 준 공로는 팔목할 만한 것이었다.

문학평론가 김윤식은 최남선의 신체시의 창각 방법을 문제삼기도 했다. 「춘원」의 말처럼 “조선에서 새로운 시, 즉 서양시의 본을 받는 시로 인쇄되어 세상에 발표된 것으로는 맨 처음”이라고 진술하면서 이 경우 서양시란 구체적으로는 일본 신체시를 뜻한다. 일본의 신체시란 시세의 진보에 옹해서 발생한 것으로, 그 작법은 格法의 자유, 규모의 광대, 언어의 풍부, 語格의 현대화, 자구의 경건, 旨意의 명석, 신기하고 청신할 것 등이라고 일본의 이노우에 데쓰지로(井上哲次郎)의 「신체시론」을 인용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창작 조건은 시이기보다 신지식 수입의 차원에 속한다는, 즉 논설의 윤(律)문화라는 비판이 있다. 최남선이 이러한 방법론에 의해 쓴 것은 그것이 문안이든 아니든 「해에게서 소년에게」뿐이며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신체시란 명칭에 불과하다면서 최남선이 심혈을 기울인 것은 오히려 노래를 부르는 것 쪽이라 말하고 있다. 또한 이 「해에게서 소년에게」는 바이런의 시 「소년 해럴드 순례」(Child Harold's Pilgrimage)의 끝부분의 변안에 가까운 것임이 이미 알려져 있다. 그러면서 조선광문회라든지 1919년의 「기미 독립 선언문」의 대문장과 1928년의 「불함문화론」 등등 최남선의 학문적 달성은 문학과는 다른 사상사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논했다.¹⁴⁾ 문학이든 사상이든 최남선이 『소년』 등을 통해 다방면에 걸쳐 이룩한 문화적인 업적은 문제삼을 것인가 안 된다고 보아진다. 한편 이 『소년』의 발행 주체인 신문관의 독자 창출을 위한 판매 전략은 오늘의 마케팅 기법을 능가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그가 주관하는 『청춘』 등의 집지

14) 김윤식 (1990) 『육당신문학』 동명사, 71~73쪽

광고지 면에서 최남선의 출판 경영 철학을 읽을 수 있다. ‘서적 잡지 주문은 신문관으로’ 라고 캐치프레이즈 아래 언급하고 있는 ‘본관의 특색’을 다음과 같이 집약하고 있다. 1.酬應迅速 2.包裝堅實 3.價格務歇 4.信用確守

이 출판 광고문을 통해 최남선의 독자에 대한 배려가 현대적인 마케팅 서비스 시상의 수준을 능가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당시 출판 영역의 어려움을 극복, 여러 가지 잡지를 발간하면서 오랫동안 출판사 신문관을 이끌어 나간 것이라 짐작되어진다. 『소년』 잡지의 창간호는 처음 독자가 6명이었고 2호 14명, 8호 9호까지 30명, 1년이 지나서 200명을 넘지 못하였다. 3권 2호부터 비로소 개인 잡지의 성격을 벗어나 춘원 이광수, 홍명희가 글로 가담하였고 8호에 이르러서 발매 금지와 정간을 당하였다가 3개월 만에 해금되어 1910년 12월 3권 8호로 속간되고 1911년 1월에 4권1호, 4개월 만인 1911년 5월에 4권 2호 (通卷23号) 로 다시 간행을 정지당하였다.

3. 최남선과 신체시

신체시가 첫 선을 보인 것은 『소년』 지의 창간호(1908년 11월)를 통해서였다. 최남선은 자신이 발행한 그때 조선 최초의 잡지인 『소년』 첫머리에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발표한 것이다. 물론 이 작품보다 조금 먼저 창작되거나 발표된 작품으로 보기에 따라서는 신체시라 여겨질 수 있는 작품들이 있다. 즉 1907년에 지었다고 작자 스스로 밝히고 있는 「구작삼편」(『소년』 1909년 4월호에 발표됨)이나 1908년 2월~4월 사이에 大夢崔란 이름으로 『대한학회월보』에 발표된 「모르네 나는」 외 5편의 시들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해에게서 소년에게」보다 선행된 신체시

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구작삼편」의 경우 발표가 지체된 특별한 상황적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표일 기준을 폐기하여 소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모르네 나는」 외 5편의 시들의 경우는 그 형태가 비록 개화가사나 창가와는 다르다 할지라도 6·5조 「생각한대로」, 7.5조 「그의 손」, 5·5조 「백성의 소리」 등 대체로 명백한 정형률에 의존하며, 신체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진취적인 기상과 같은 주제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밥만먹으면 배가부름을 모르네나는
물만마시면 목이푹음을 모르네나는
해만번하면 세상인들을 모르네나는
돈만만흐면 근심업난들 모르네나는
벼슬만하면 몸이귀함을 모르네나는
디식만흐면 마음맑음을 모르네나는
우리구함과 우리탓난것 이뿐아닐세
여러가디가 모다긴하고 동요로우나
갑덜더한것 또잇난들을 아나모르나
밥과마실것 돈과벼슬은 엇디못해도
낙과영화와 몸과목숨은 이러바려도
나의다유는 보던할디며 타다올디니
다유한아만 다유한아만 갓디못하면
그의세상은 아모것업고 캄캄하리라
하날우에서 내려다뵈는 모든영화를
다들디라도 아니뵈구네 나의다유와

따뜻한다유 잇난곳에만 성물이살고
해가뜨이고 별이돌아서 목덕일우네
다유이다유 발길끈어서 불수업스면¹⁵⁾

그러므로 기왕에 대체로 받아들여져 온 대로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신체의 첫 작품이며 대표적인 작품으로 봐서 별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一

처.....르썩, 처.....르썩, 척, 썩.....아.
따린다, 부순다, 무너 바린다.
태산 같은 높은 피. 집채 같은 바윗돌이나.
요것이 무어야, 요게 무어야.
나의 큰 힘 아나냐, 모르나냐, 호통까지 하면서
따린다, 부순다, 무너 바린다.
처.....르썩, 처.....르썩, 척, 튜르릉, 짹.

二

처.....르썩, 처.....르썩, 척, 썩.....아.
내게는, 아모 것도, 두려움 없어,
육상에서,아모런, 힘과 권을 부리던 자라도,
내 앞에 와서는 꿈쩍 못하고,
아모리 큰 물건도 내게는 행세하지 못하네.

15) 「모르네 나는」의 일부, 「대한학회월보」, 제1권 1호, 1908. 2

내게는 내게는 나의 앞에는

쳐.....르썸, 쳐.....르썸, 척, 튜르릉, 짹.

三

쳐.....르썸, 쳐.....르썸, 척,쌌..... 아.

나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가,

지금까지 있거던 통기하고 나서 보아라.

진시황, 나팔륜, 너희들이나.

누구 누구 누구냐 너희 역시 내게는 굽히도다.

나허구 겨를 이 있건 오나라.

쳐.....르썸, 쳐.....르썸, 척, 튜르릉, 짹.

이 시에서 작자는 소년의 무한한 힘과 진취적 기상을 바다의 거센 파도에 비유하여 활달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태산같이 높은 뒀”로 표상되는 어떠한 물리적 힘이나. 진시황이나 나폴레옹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어떤 권세도 소년의 힘과 기상 앞에서는 한갓 무력한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역사를 혁신할 주역으로서의 소년에 대한 기대와 열린 세계를 지향하는 자세를 활발하게 펴 보였다. 그러므로 이 시의 새로운 소년이라는 새로운 세대에 의해 새 시대가 희망차게 열릴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거침없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인데, 형식과 표현에 있어서도 그것에 걸맞게 전혀 거침없이 활달하다.

각 연의 허두와 끝자리에 의성어가 사용되고 있고, 그 의성어는 단순한 음성징의 효과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시대를 의식한 제작자의 철학이 내재되어 있다. 또 이 시에는 개항 이후 한국 주변에서 본

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구어체 종결 어미인 ‘-다’가 한 행에 연거푸 세 개나 쓰고 있기도 한다. 이는 작품이 지니는 의미의 매듭을 선명하게 전달하며 그 호흡을 경쾌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그 운율을 박력 있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¹⁶⁾ 이 시는 형식에 있어서도 그 이전의 시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매우 새로운 것이었다.

우선 첫째 이 시는 얼핏 봐서도 매우 자유스러운 형식으로 보인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상은 전통적으로 계승해 온 시조의 정형률에 의거하여 표현할 수 없었으므로 불가피하게 새 사상이 요청하는 새 형식을 창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그 결과 최남선은 새 시대가 요청하는 내용과 어울리는 대담한 변조로써 1연 7행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런데 이 시는 한 연만 보면 자유시이지만 각 연의 대응되는 행들끼리는 모두 일정한 자수율을 지키는 전형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일찍이 조연현은 정형성을 깨뜨렸다는 점에서는 ‘한국 시사에 혁명적인 의의’를 지닌 것으로 보면서도 각 연 대응 행끼리의 정형적 자수율 때문에 반율문적인 것으로 보아 ‘형태상의 불안정성’을 말하고 있다.¹⁷⁾ 또 김춘수도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형적인 자유시 내지 준자유시’로 보면서, “심리적으로는 꽤 불안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고, 역사적으로는 진보적인 형태”¹⁸⁾라고 하여 과도기 시 형식으로서의 약점과 역사적인 진보성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 이 경우 역사적으로 진보적인 형태란 신체시 형식의 근대로의 근접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체시에 대해 일정한 의의를 부여하는 입장과는 달리 철저히 부정하는 입장도 있다.

한 연만 보면 자유시이고, 여섯 연을 서로 견주어 보면 비슷한 예를

16) 김용직 (1986) 「한국근대시사」 학연사, 91-92쪽

17) 조연현 (1969) 「한국현대문학사」 성문각, (초간 1956), 117-118쪽.

18) 김춘수 (1958) 「한국현대시형태론」 해동문화사, 23쪽

찾을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정형시이다. 정형시와 자유시를 각기 극단화하고자 한 시도가 이 작품에서는 한꺼번에 나타났다. 앞뒤의 줄이 정형적인 규칙에 따라서 연결되면서 글자수는 달라질 수 있는 우리 시가의 기본 원리를 양면으로 파괴했다.¹⁹⁾

우리의 창가나 신체시가 일본의 창가, 신체시의 영향으로 창작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창가와 신체시는 결코 자유시형을 탐색하려는 의도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유시로의 발전에 제동을 걸면서 정형시-정형시로 복귀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쓰여진 반동적인 시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들의 시형과 율격 구조에서 쉽게 드러나는 사실이다. 창가의 경우는 7.5조 혹은 8.5조, 4.4조 등이 엄격히 지켜지므로 전통가사나 시조의 음수율보다 오히려 더 경색되어 있으며, 신체시 역시 매 연 대응 행의 수나 마디의 수, 그리고 마디를 구성하는 음절수가 기계적인 정확성을 보여 완전한 정형과 정형률을 보여주기 때문이다.²⁰⁾

그러므로 조동일 교수는 이렇게 해서 신체시가 전통적인 율격이 계승되면서 변형되는 데 이중으로 제동을 걸고, 한쪽으로는 극단적인 정형시를 또 한쪽으로는 극단적인 자유시로 시를 새롭게 하고자 해서 파탄을 자초했다고 한다.²¹⁾ 그에 의하면 신체시가 근대시로 이어진 것은 사실이나 신체시의 유산은 근대사를 방황하고 좌절하게 하는 상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점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시인들은 전통과 단절된 채 서양 문학의 충격에 이끌려 근대 문학을 일거에 이룩한다면서, 설익은 관념에 사로잡혀 공허한 영탄을 일삼는 신체시의 과오를 되풀이했다

19) 조동일 (1988) 「한국문학통사」 지식산업사, 1996 405쪽

20) 오세영 (1993) “자유시 형식에 있어서 사설시조와 잡가” (『한국문화』 14집,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33쪽

21) 조동일 (1988) 「한국문학통사」 지식산업사, 1996 405쪽

는 것이다.²²⁾ 오세영은 한국 근대 문학사에서 자유시가 자생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마지막 단계에 대두한 문학적 반동 세력은 오히려 그것이 붕괴됨으로써 (창가와 신체시 운동이 문학적으로 실패하면서) 마침내 자유시형이 민족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주장한다.²³⁾

신체시는 과연 이 두 논자의 비판처럼 근대 전화기의 자유시 형성 과정에서 부정적인 역할만 한 것일까? 신체시가 한국의 자유시형의 이상에서 크게 이탈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운율을 포함한 시의 형식에서도 그러하고 관념의 형상화란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를 위한 최남선의 시험과 시행착오는 근대적인 자유시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치를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형식 시험은 재래 시가의 엄격한 규범에 얽매인 정형률에서 벗어나서 율격적인 자유를 모색하고자 했음은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그 실천에 있어서는 한 연 내에서는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였으나 그런 형식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그 완전한 자유에 대한 나름대로의 일정한 규율의 방법으로 각 연의 대응 행에서는 음절 수의 일치를 꾀했던 게 아닌가 한다. ²⁴⁾

자유시의 형식을 시험하겠다는 하여 시행의 길이는 자유스럽게 하였으나 각 연의 대응 행끼리는 음수율적 정형에 구속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순된 작업이 된 셈이다. 각 연의 대응 행끼리 음수율적 정형률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의 결정적인 한계였지만, 한 연 안에서는 자유율을 지향하여 자유시적 가능성의 충격을 주었다는 점에서는 매우 의의 있는 일이었다고 하겠다. 7.5조 등 음수율에 대한 혼란은 일제시대를 지나 심지어 오늘날

22) 조동일, (1988) 「한국문학통사」 5 지식산업사, 1996, 57쪽

23) 오세영 (1993) “자유시 형식에 있어서 사설시조와 잡가” (『한국문화』 14집,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33쪽

24) 장도준, (2000) 『배달말』 논문 「육당 최남선의 신체시와 시사적 의의」 85쪽

까지도 계속 것으로 봐서 개화가사, 창가 등 음수율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당시에는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한 것이었을지 모른다. 이러한 수준이 당시까지 그가 생각해낸 자유율에 대한 인식 수준이었고 기여 정도가 아니었을까.²⁵⁾

그 후 신체시가 준전형·준자유형의 특이성 「해에게서 소년에게」, 「신대한소년」, 「삼면환해국」에서 점차 외형의 틀이 조금 완화되고 주제 의식도 생경한 계몽성에서 벗어나 관념이 어느 정도 정서화되다가 「말듣거라」, 「님나신 날」 등의 작품, 나중에는 정형에서 해방된 작품(최남선의 「태백산부」, 춘원의 「우리영웅」, 「곰」, 「어머니의 무릎」 등, 현상윤의 「새벽」, 「향상」 등)으로 극복 발전되는 것만 보았다. 신체시의 창작 의식과 실천은 자유시 형성 과정에서 반드시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²⁶⁾

그러므로 신체시가 한편으로 가지는 진보성 내지는 혁명성과 또 한편으로 가지는 반동성 내지는 기형성이라는 양가치적인 측면은 근대 전환기에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진통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 형식을 위한 어떠한 미적 노력도 생각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또 단 한 명의 전문 시인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에 최남선은 매우 의식적으로 새로운 시에 대한 형식 시험을 시도했던 것이다. 최남선은 자신이 부정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전문적인 시인이었고 새로운 시를 위한 근대적인 시험은 최남선의 신체시 이후부터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의 신체시가 근대 자유시 형성의 유일한 동기라고는 할 수 없지만 매우 중요한 계기와 시금석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임을 말할 나위 없을 것이고 그의 시의 공과 과는 모두 다음 시를 위한 밑거름이 되

25) 장도준, “한국 근대 자유시 형성과 전통 계승의 문제”, 『한국 현대시의 전통과 새로움』, 28쪽

26) 김용직 (1986) 「한국근대시사」 학연사, 102-105쪽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유시에 대한 장르 의식이 투철하지 못했고, 그 이후 자유시를 위한 그의 노력이 더 이상 전전되지 못한 나머지 운율적 긴장을 놓아버린 산문화를 보여 주거나 창가와 시조라는 더 엄격한 자수율과 정형률로 퇴행한 것은 한국 근대시 발전을 위해 아쉬운 점이었지만, 또 신체시에서 모색된 자유율이 그대로 자유시로 장르적 승화를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시 형식을 위한 최초의 의식적인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값진 것이었다 할 것이다. 27)

둘째로 이 시의 새로운 면모로 구어체와 의성어의 사용을 들 수 있겠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시는 그 이전의 개화가사나 창가보다 구어체 어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속도감을 수반한 문체 역시 간과될 일이 아니다. 또 하나 신체시에는 행과 연에 대한 인식의 자취와 함께 구두점의 사용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본래 구두점의 사용은 작품의 형태, 특히 운율과 밀접한 상관 관계를 지닌다. 구두점은 시조에 사용될 때 의미의 단락과 단락사이에 쓰이면서 그 한계를 명시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다음 단락과 연결, 호흡 조정 문제까지를 담당해 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신체시에 구두점 사용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일 역시 간과될 일은 아니다. 그 역시 이 유형에 속하는 작품들의 근대적 성향이라고 보아야겠다. 28)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의 신체시의 새로움은 근대 자유시로 발전에 직결되기에는 또한 많은 한계를 지닌 것이었다. 그 한계는 시대 의식과 형식에 모두 해당된다. 새로운 세대에 의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사상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시만큼 강하게 상징하여

27) 장도준 (2000) 『배달말』 논문 「육당 최남선의 신체시와 시사적 의의」 86-87쪽

28) 김용직 (1986) 「한국근대시사」 학연사, 95쪽

드러난 시가는 일찍이 없었으나 1905년에 이미 실질적 외교권이 상실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한다면, 맹목의 계몽주의를 이처럼 잘 보여주는 것도 한 없다 하겠다.²⁹⁾ 자유, 평등 등의 관념이 현실적인 표현 속에서 객관화되지 못하고 기성화되고 당위적인 감정에 압도되고 있는 것이다. 그 형식에 있어서도 새로운 형태를 탄생시킨 것이기는 하나 다음에 올, 자유시의 미적 공감이가 큰 시형에 비해 한계를 지닌 것이었다. 그러므로 신체시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최남선의 창의를 머물고 만 것으로 보인다.³⁰⁾ 이는 시의식보다 너무 앞섰으면서도 아직 순진했던 민족 의식이나 사회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모처럼 채용한 구어 시문체가 지닌 스스로의 리듬과 자수율에의 집착, 이 이율적인 모습을 타개하기에는 최남선의 시적 미의식과 그 리듬 의식이 너무나 허약했다고 볼 수 있겠다.³¹⁾

4. 근대 잡지 『청춘』의 계몽성

『청춘』은 최남선이 주재한 다섯 번째의 잡지인데 1914년 10월 1일자로 창간되어 1918년 9월 통권15호를 내고 강제 폐간 당했다. 『소년』 『붉은 저고리』 『아이들 보이』 『셋별』의 뒤를 이어서 일반 교양을 목표로 펴낸 계몽적 대중지이다. 1915년 3월에 통권 제6호가 국시위반이라는 구실로 정간 되었다. 1917년 5월 속간되어 제10호와 제11호는 격월간으로 발행되었으며 제12호는 3개월 만에, 제13호는 다시 격월로 발행되

29) 김윤식 (1999) “육당과 『소년』”, 「이광수와 그의 세대I」 솔출판사 489-491쪽

30) 신동욱·조남철 (1999) 『한국문학사』 한국방송통신대출판부, 42쪽

31) 정한모 (1974) 『한국현대시문학사』 일지사, 194쪽

었고 최종호인 제15호도 2개월 뒤에 나왔다. 편집 내용은 정치·시사를 다룰 수 없었으므로, 인문과학·사회과학·자연과학을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읽을 수 있도록 흥미 중심으로 엮었다. 제1호의 판권장을 보면 저작 발행자 최창선, 인쇄자는 최성우, 인쇄소는 신문관, 발행소는 신문관으로 되어 있다.³²⁾ 때 맞추어 나오지 못한 『청춘』에서 보듯 이 잡지의 간행도 순조롭지 못하였다.

창간사에서 “아무라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욱 배워야 하며 더 배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아무것보다도 더욱 배움에서 못합니다……(중략)……우리는 여러분으로 더불어 배움의 동무가 되려 합니다. 다같이 배웁시다. 더욱 배우며 더 배웁시다.”라고 한 데서 발간취지를 알 수 있다. 세계과학과 지리학에 대한 내용은 계몽적 논설로 「아관 我觀」 「냉매열평 冷罵熱評」 「편견과 누습을 버리라」 「재물론」 「노력론」 「용기론」 「귀천론」 「초절론」 「풍기혁신론」 등이 있고, 세계문학개관란에 위고 (Hugo,V.)의 「레미제라블」,톨스토이(Tolstoi,L.N.)의 「부활」,밀턴 (Milton,J.)의 「실락원」,세르반테스 (Cervantes,S.M.de)의 「돈키호테」,초서 (Chaucer,G.)의 「캔터베리기」,모파상 (Maupassant,G.de)의 「더러운 면포」 등을 소개하였다.

국내고전 소개로 「표해가(漂海歌)」 「호남가」 「팔도가」 「고금시조」 「연암외전(燕巖外傳)」 「수성지(愁城誌)」 「광한전백옥루상량문(廣寒殿白玉樓上樑文)」 등이 있다.

또, 신문학으로 이광수(李光洙)의 시·시조, 초기소설 「김경(金鏡)」 · 「소년의 비애」 「어린 벗에게」 「방황」 「윤광호(尹光浩)」 등과 최남선의 작품이 실려 있고, 현상 모집을 통하여 시·시조·한시·잡가·신체시가·

32)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3885&cid=46668&categoryId=46668>

보통문·단편 소설 등의 작품을 뽑았다.³³⁾

잡지내용은 인문과학·자연과학 등의 내용을 다루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읽을 수 있도록 흥미 중심으로 엮었고, 문학 부문에 비중을 두어 준문학지의 성격을 띠었지만 역사와 철학 등의 기사가 골고루 갖춘 종합지였다. 수록된 작품은 계몽적 논설로 ‘아관’ ‘편견과 수습을 버리라’ ‘용기론’ 등이 실렸고, 세계문학개관란을 두어 ‘레미제라블’ ‘부활’ ‘돈키호테’ 등을 소개했다. 또 국내 고전 문학을 비롯해 이광수의 ‘소년의 비애’ ‘방황’과 최남선의 ‘새해’ ‘꿈’ 등 신문학 작품도 소개되었다. 현상 모집을 통해서 시·시조·잡가·보통문·단편소설 등의 작품을 뽑기도 했다.³⁴⁾

근대 초기 최남선은 근대지의 한 분야로 문학을 이해했다. 그는 자신이 주관한 『청춘』과 『소년』을 통해 다양한 근대 지식을 소개했는데 문학작품은 그러한 근대 지식의 하위 범주로 배치되었다. 최남선은 지식의 율문화를 통해 근대 지식의 대중적 보급을 시도했고 근대지의 관점에서 서구 문학 작품을 번역 소개하며 이를 한국 문학의 배타적 모범으로 정전화했다. 이러한 현상은 최남선, 이광수, 현상윤 등 『청춘』 그룹의 문명관에 그 이론적 근거가 있었다.

『청춘』 그룹은 서구적 문명의 보편화를 당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했다. 그들은 서구 문명이 달성한 근대의 주체화를 통해 식민지 해방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식민지 상황에서 그들이 주체화할 수 있는 근대제도는 많지 않았다. 근대적 제도화의 노력이 문학에 집중된 것은 그러한 여타 영역의 원천 봉쇄와도 깊이 관련된 일이다. 문학과 같은 정신적 추상의 세계만이 그들에게 주어진 근대 제도의 영역이었다. 『청춘』 그룹이 문학의 사회적 제도화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

33) 지식백화//terms.naver.com/entry.nhn?docId=563885&cid=46668&categoryId=46668

34) 다음 블로그 <http://blog.daum.net/gjkyemovie/11351284>

인 것은 이 때문이다. 문학을 중심으로 근대 제도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특히 현상 문예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청춘』의 현상 문예는 독자의 화개와 문인 재생 구조의 확립을 포함해 문학이 사회 조직 속에 자신의 육체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청춘』의 본격적인 현상 문예 제도가 시행되기 앞서 『소년』에서도 실험적인시도가 있었다. 최남선은 『소년』 창간호(1908.11)부터 「소년문단」을 통해 독자의 투고를 유도했다. 표현은 ‘문단’이었지만 문학작품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감화·견문·일기·풍토지·선배 경력·詩詞·서한 등이 모두 투고 가능했다. 투고 요령으로 ‘진실을 일티 말 일’과 ‘쓸데없는 敘景과 誇大한 記事를 피’하여 ‘簡要를 攄當할 일’(『소년』 1호, 78~80면)이 강조되었는데 여기에는 근대적 글쓰기를 보편화하려는 취지가 들어 있었다. 문학에 대한 이해 이전에 언문 일치에 근거한 사실적 작문 능력의 함양이 더 중요한 시기였던 탓이다. 그런데 「소년문단」은 2호까지 밖에 지속되지 못했다. 「소년문단」이 지속되지 못한 까닭은 무엇보다 근대적 글쓰기에 익숙한 투고자가 적었던 탓으로 판단된다.

『청춘』의 현상 문예는 휴간2년 만에 복간된 7호에 그 첫 광고가 실리면서 시작되었다. 광고는 ‘매호 현상 문예’와 ‘특별 대현상’ 두 분야로 발표되었다. ‘매호 현상 문예’는 시조, 한시, 잡가, 신체시가, 보통문, 단편소설 등6개분야로 공모했는데 시조와 한시는 1원 상당의 서적권, 잡가와 신체시가는 50전에서 5원까지의 상금, 보통문은 50전에서 2원, 단편 소설은 1원에서 3원까지의 상금이 주어졌다. 참고로 7호 발간 당시 『청춘』의 책값은 이십 전이었다.

끝으로 1910년대 사회에서 『청춘』의 현상 문예가 지녔던 정치적 의미를 언급하고자 한다. 신소설의 생산·유통 제도가 불신을 받게 된 것은 식민지 지배 체제의 탄압에 원인이 있었다.³⁵⁾ 근대 문학의 예술성은 무

엇보다 그 작품 내용의 현실성에 기반하고 있는데 현실성의 묘사가 억압되고 있는 동안 신소설은 본래 자체 내에 내장되어 있던 통속적 요소의 강화를 통해 서적상들의 영리 목적에만 봉사하게 되었던 것이다. 신지식층이 신소설을 부정한 것은 그들이 지녔던 근대 지식의 관점에서 문학은 시대의 현실성을 담보해야 함에도 신소설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10년대 신지식층은 그들의 새로운 가치 판단에 부합하는 문학 시장의 형성을 필요로 하였다. 문학이 근대 지식 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수록 그 요구는 강해지게 되었다. 『청춘』의 현상 문예 제도의 이면에는 당대의 이러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어 있었다.

그런데 1910년대의 신지식층에게 ‘문학적’ 것은 곧 정치적인 것을 뜻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1910년대 식민지 권력의 문화 정책과 다른 차원의 문학을 수립하려는 것은 곧 식민 체제와의 우회적 대립을 의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청춘』의 현상 문예는 그 때문에 현실 정치적인 의미를 떨 수밖에 없었다. 근대 문학의 재생산 구조를 가동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식민 체제의 문화 정책을 폭로하고 해체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문학이 그 내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형식 자체로 반체제적인 성격을 지녔던 것이 1910년대 후반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매일신보』의 현상 문예가 큰 관심을 얻지 못하고 『신문계』가 현상 문예 제도를 도입하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근대문학의 장과 재생산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가 식민 체제에 위협적 새력을 생성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춘』의 폐간에는 현상 문예의 정치적 위험성에 대한 총독부의 우려가 일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상 문예는 표면적으로 탈정치적 문화 제도의 구축

35) 한기현 (1999) 「1910년대 신소설에 미친 출판·유통 환경의 영향」 『한국근대소설사의 시각』 소명출판, 25-27쪽

에 불과했으나 지식인 사회의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³⁶⁾ 잡지 매체의 사회적 영향력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무단 통치기 식민 체제에 위협적인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문학을 중심으로 근대제도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특히 현상 문예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청춘』의 현상 문예는 독자와 확대와 문인 재생산 구조의 확립을 포함해 문학이 사회 조직 속에 자신의 육체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문학은 근대 사회를 구동하는 중심적 문화제도의 하나로 확고한 위상을 갖게 되었고 동시에 근대 학문의 핵심 분야로 그 성격을 심화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5. 『청춘』 중 근대적 인간의 내적 가치

최남선은 『청춘』에 이르러서 ‘세계문학개관’이라는 범주 아래 더욱 체계적으로 서양문학들을 소개한다. 그는 기준에 적합한 서양문학을 중복되지 않게 차례로 소개하는데, 1914년 『청춘』 창간호에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은 「너참불쌍타」로, 2호에서 톨스토이의 『부활』은 「更生」으로, 3호에서는 존밀턴의 『실락원』을, 4호에서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頓基浩傳奇」로, 6호부터 9호까지는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를 「캔터베리記」라는 제목으로 연재한다.

『청춘』의 ‘세계문학개관’에 수록된 번역 문학은 『소년』과 마찬가지로 초역에 해당하지만 『소년』보다 더욱 진전된 수준의 내적 가치를 소유한 근대적 인간을 재현한다. 최남선은 “세계를 움직이려 하거던 자기부터 움직이라”³⁷⁾라고 하며 개인의 수양을 강조한다. 이렇게 구현되는

36) 『청춘』 현상문예 당선자와 작품목록을 참고할 것

근대적 인간상은 양심을 가진 인물이다. 세계문학개관 에서는 『소년』의 「ABC契」에서 구호로 외쳤던 ‘평등’을 이야기 하는 장면에 자연스럽게 재배치한다. 집과 재산을 시에 寄附하여 그것으로 葬費와 貧民救濟에 쓰라는 書字를 적어 녀승을 주는데³⁷⁾

‘세계문학개관’의 작품은 이와 같이 근대인으로서 지녀야 할 가치관을 대중에게 보여주는데, 교양 고양에 필요한 이런 덕목은 대중들이 많이 읽었을 때 그 효과를 발휘한다.

시대의 추세에 따라가기 때문으로 발행 당시부터 썩 널리 세상에 傳頌되고 시방은 세계의 제일 특기한 책으로 「일리아드」와 「하플렛」으로 아울러 三大寶典에 전열하게 되었으며 원서의 간행이 백오십種이오.³⁸⁾

‘세계문학개관’ 작품에는 권선징악적 요소가 거의 없다. 전통적 고전 문학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겁탈, 수청 강요 등의 위협적인 소재가 이야기에 등장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고전 문학에서는 그런 위협적인 일이 성공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그런 비윤리적인 일을 벌인 인물은 그것에 응당한 죄값으로 벌을 받는다. 그러나 근대 문학에서는 이와 같은 권선징악적 구도가 사라지고 비윤리적 행위에 의한 사건은 사실 그대로 비극성을 띤다. 이 때 죄를 지은 인간은 자기 반성의 과정을 거쳐 윤리적 인간으로 성장한다. 근대라는 것은 인간과 신의 관계를 절연하고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주체적 인식을 하는 시기인데, 이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성이다. 신이 부여한 운명, 권선징악이 사라진 시대에 인간들은 이성을 통한 자기 비판과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 중심적인 윤리를 만들어내야 했다. 이것이 잘 발현된 것이 문학과 서구에서 이것을 선했다고 여겼기 때문

37) 최남선 (2009), 『신문독본』 (1916), 근대독본총서 1, 경진, 120-121쪽

38) 최남선 (1914), 「너 참 불상타」, 『청춘』 제1호 14쪽

39) 최남선 (1915), 「頓基浩傳奇」 『청춘』 제4호, 110쪽

에 최남선은 세계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선별된 서구 문학을 받아들임으로써 근대적 인간의 내적 가치에 대해 주체적 방식으로 고민하고 소개하려는 노력을 보였던 것이다.

『청춘』 외 ‘세계문학개관’ 작품은 ‘인간 본연의 감정’과 ‘이성’이 결합하여 문학성과 계몽성을 띠면서 근대적 인간의 내적 가치를 구현한다.

『소년』의 번역 작품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내적 가치의 윤리성과 진취성을 상징하고 계몽을 강조하고 있다면, 『청춘』의 ‘세계문학개관’ 작품은 윤리성, 진취성과 함께 좀 더 복잡한 인간 본연의 감정들, 예컨대 욕망, 질투, 죄 그리고 사랑 등을 다루면서 고뇌와 번민, 갈등과 자기반성, 최종적으로 성장과 성찰의 구체적인 인간적 과정들을 탐문하면서 문학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자와 후자 모두 계몽이라는 근대적 요구를 바탕으로 인간의 내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후자는 인간 본연의 감정을 더욱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주도면밀하게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문학 장르를 구축하고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문학성을 강조함으로써 근대 문학의 성립에 기여하게 된다.

최남선의 잡지를 통한 계몽 활동과 근대 문화 소개는 사상이나 역사보다는 문학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서양의 지리와 역사 문물, 과학에 대한 소개도 있으나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대중적 호소력에서 문학이 더 편리했다는 점도 있고, 사상이나 역사를 언급할 경우에 총독부와 직접적인 충돌할 가능성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잡지를 통한 계몽은 한계는 갖고 있으며 일정하게 총독부와 타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진독수는 이 점에서 최남선과 달랐다. 비교적 오랫동안 『신청년』을 연속적인 발행할 수 있었고 비판도 자유로웠다.

제2장 『신청년』과 진독수

1. 『신청년』의 창간

진독수는(1879~1942) 중국의 정치가, 평론가. 안휘성 명문가에서 출생. 일본으로 유학했으나 동맹회⁴⁰⁾에는 들지 않았고, 귀국 후 1915년 상해에서 잡지 『신청년』⁴¹⁾을 발행했다. 1916년 채원배에게 초청되어 북경대학 문과 과장이 되었고, 5·4문화혁명의 선두에 섰다. 1917년 2월 『신청년』에 발표했던 「문학혁명론」은 귀족, 고전, 윤리, 도덕, 예술을 무너뜨리고, 국민적·사실적·사회적 문학에 의한 근대 합리주의를 주장하였으며, 진화론과 자연과학을 고취시켰다.

1910년부터 약 10년 동안은 중국 근대사에서 특별한 전환기로 기록된다. 1911년 신해혁명 이후 많은 해외파 유학생들이 귀국하였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전국을 바라보면서 정치제도 변화만으로는 근대적 국가를 건설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서양의 사상과 문화적 이념을 적극 수용하여 중국의 전통 문화와 기존 제도를 비판하고 문명 개화적인 시각에서 대중

40) 중국동맹회(中國同盟會)는 1905년 8월 20일, 쑨원(孫文)이 일본 도쿄에서 조직한 저항운동 비밀결사의 이름이다. 동맹회는 한족(漢族)의 애국지사, 공화주의자,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공동의 목표로 함께 뭉쳐, 이제까지 있던 비슷한 반청(反淸), 반외세 단체들인 흥중회(興中會), 화흥회(華興會) 등의 단체를 동맹회로 합쳐 조직했다. 쑨원은 이 모임의 초대 회장에 추대되었고, 황흥(黃興), 쑹자오런(宋教仁), 왕징웨이(汪精衛, 왕조명) 등이 참여하였다.

41) 『신청년』은 처음에 『청년잡지』라는 명칭으로 출발하였으나 그 이듬해인 1916년 1월 15일 부터는 잡지명을 『신청년』으로 바꾸었다.

을 계몽하여 근대 국가 건설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관 주도의 일방통행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직접 대중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잡지를 통해 이미 근대화를 이룬 혹은 근대화 과정에 있는 서구와 일본의 근대적인 이념과 사상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양 문헌에 대한 번역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번역이 가지는 의미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그들의 이와 같은 열망은 1915년 9월에 『신청년』이라는 잡지 발행으로 표출되었다. 이 잡지는 1926년 6월까지 근 10년 동안 발행이 지속되었다가 같은 해 7월에 중단되었다. 발행 권수는 총 63권이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요구에 의해 창간된 『신청년』은 번역 문학 생산의 중심 잡지였고 소설, 동화, 신화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막론하고 외국문학 작품을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신청년』에 발표된 문장 중 번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24%이고 번역 작품 가운데에서도 문학 작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50%가량 되었다. 『신청년』 발간 기간 중 외국 작품이 가장 많이 번역된 시기가 두 차례 있었는데 그 중 최고봉에 이르는 때가 제4권이 발간된 때로 1918년 1월에서 6월에 해당한다. 이때 번역된 작품 가운데 문학 작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89%에 달아하였다. 이러한 비율은 당시 문화 운동의 문학 혁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⁴²⁾ 문학이 대중화에서 역사나 사상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 점 에서도 최남선의 잡지 운동과 성격이 같았다.

10월 혁명 이후 마르크스주의 방향을 취해, 중공 창립에 큰 몫을 담당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의 힘을 믿지 않고, 농민의 조직화에 주력했던 모택동과 대립하였다. 국공 분열에 즈음하여 우익기회주의의 오류를 범했고 1929년에는 제명당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에는 마르크스주의 입

42) 김진아 (2011) 「중국 근대 신청년 잡지 속의 페미니즘 번역 작품이 중국사회와 번역에 미친 영향」 38쪽

장을 취했다. 중일 전쟁 폭발 이후 실의에 빠져서 병사했다.

진독수는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후 상하이에서 1915년 9월 15일 군익 서사를 통해 『청년잡지』를 창간한다. 이 잡지는 이듬해 『신청년』이란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달고 근거지를 상하이에서 베이징으로 옮긴다. 그 이후 1922년 7월 1일 휴간될 때까지 『신청년』은 5.4 신문화 운동을 주도하는 진보적 지식인 진영의 진지가 된다. 이 같은 신문화 운동의 주요 매개였다는 『신청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대 중국 지식인 담론 사회의 내부 변동에 대해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

1915년 9월에 창간된 국민 계몽지이다. 창간사를 대신한 진독수의 「경고청년」에서 '자주적이되 비노예적이며, 진보적이되 비퇴영적이며, 진취적이되 비은일적이며, 세계적이되 비쇄국적이며, 실리적이되 비허명적이며, 과학적이되 비상상적이다' 등 6가지 대의를 표방한 반봉건·반고전 문학의 바탕 위에서 민주혁명을 고취한 잡지이다.

『신청년』은 진독수에 의해 상하이에서 창간되었다. 잡지 창간 무렵 당시 중국은 문자 그대로 내외외환의 곤경에 처하고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북양 군벌 원세개가 정권을 탈취하여 신해 혁명이 좌절되고 봉건 군벌 전제정치가 심화되는 시기였다. 사상적으로는 원세개의 반동통치와 함께 신문과 여론의 조작을 통하여 봉건주의적 도덕과 尊孔사상이 강화되고 있었다. 즉 옛문화와 옛사상의 복고적인 기류속에 민중의 새로운 각성을 저해하고 있는 분위기였다. 또한 대외적으로 일본을 비롯한 외국 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침략이 중국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이와같은 상황속에 일부 선진적인 지식인과 소자산 계급은 중국 현실의 개혁을 요구했으며 신해 혁명의 이상이었던 민주공화 정치의 실현을 요구하였다. 사상운동 때문에 이들은 중국 국민들의 사상적 계몽과 각성을 통하

여 국민성을 개조하는 사상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자 하였다. 사상 운동이란 곧 중국의 전통적인 봉건주의 사상을 배격하고 민주주의 사상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신청년』은 바로 이 같은 역사적인 배경과 시대적 요구에 의해 창간되었으며 이것은 곧 신문화 운동의 출발점이었다. 『신청년』 잡지는 처음에 진독수 자신이 직접 단독으로 편집 출간했으며 당시의 봉건 군벌의 강압 때문에 직접적인 정치 관련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정치 문제보다는 젊은이들을 봉건적인 미몽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한 사상 계몽 운동에 치중하였다. 초기의 『신청년』 잡지는 중국 청년의 이념적 각성의 필요함을 역설하는 사상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신청년』 잡지는 발간을 거듭하면서 중국 내외의 상황 변화와 함께 편집자와 필진이 바뀌고 따라서 그 내용의 성격도 변화하게 되었다. 『신청년』 잡지의 성격변화는 곧 당시 중국 사회의 사상적 변화를 상징하였으며 또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⁴³⁾ 창간의 취지에서 최남선의 『소년』이나 『청춘』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서양문화의 소개는 비중이 낮은 편이고 직접적인 전통비판이 강렬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났다.

2. 『신청년』과 『安徽俗話報』

『신청년』 소개하려면 『안휘속화보(安徽俗話報)』도 알아야 된다. 신해 혁명은 전제 군주 체제를 전복시켰지만 그 밖의 어떠한 사회적 제요소도

43) 신일섭 (1991) 『신청년잡지의성격변화연구』 <역사학연구(구 전남사학)> 5권0호, 101-138쪽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대체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혁명전야에 민가에서 진행된 계몽 운동이 1916년부터 시작된 사회·문화적 혁명, 즉 신문화 운동의 성공으로 이어진 것도 사실이다.⁴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몽 운동은 근대 서구의 계몽 주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중국에 이를 적용시킬 경우 개념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서구의 계몽 주의가 합리 주의 사조의 발흥에 따라 인간의 이성과 진보를 신봉하여 중세적 전통에 의심과 비판을 진행한 지식인 집단의 민간의 사회·문화적 운동이라면 중국은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서 지식인 집단의 구국 운동의 일환에서 출현한 것으로 정치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중국에서도 국내외의 정세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었지만 신문화 운동 초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민간 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⁵⁾ 그런데 신문화 운동 초기에 나타나는 계몽 운동은 청말 혁명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의 언론 출판물을 통해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여기서는 이시기 대표적 혁명 선전물로 알려진 진독수의 『안휘속화보』를 검토하는 것으로 혁명 운동 과정에서 진행된 계몽 운동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⁴⁶⁾

진독수는 그의 일생을 통해 다양한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파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특히 1910년대 후반 『신청년』을 통한 문학 혁명, 민주, 과학의 표방은 그의 사상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⁴⁷⁾ 그러나 20세기 초에 그가 주도한 『안휘속화보』에 대한 연구는 그

44) 金衡鍾 (2002) 『清末 新政期の 研究-江蘇省의 新政과 紳士層』. 서울대학교 출판부. 1-9쪽

45) 曹秉汗 (2000) 「19세기 후반 중·일의 계몽사상: 嚴夏과 福澤論吉」. 『震檀學報』. 261-264쪽

46) 이상구 (2008) 「辛亥革命時期 陳獨秀의 『安徽俗話報』 啓蒙運動」. 『계명사학』 34쪽

47) 진독수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다. 중국과 대만, 홍콩, 일본의 연구 성과는 鄧紅 「陳獨秀關係研究論文論著目録」 『大分縣立藝術文化短期大學研

중요성에 비해 적은 편이다. 기왕의 연구도 사상사적 입장에서 진독수의 초기 사상에 주목하여 단지 『안휘속화보』의 논설에서 나타나는 진독수의 사상사적 위치를 논했을 뿐이다.⁴⁸⁾ 특히 중국에서 진행된 연구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안휘속화보』의 성격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다. 그들은 채원배가 말한바 있는 “표면상 상식을 보급하지만 암중에는 혁명을 고취했다⁴⁹⁾”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 신문이 가진 청나라를 반대하는 혁명성에 의미를 두었다.⁵⁰⁾ 이 신문이 정부를 반대하는 사상을 가진 것은 아니었고 민중개개인의 의식혁명에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진독수를 이 시기의 진천화와 비교하여 “망국의 위기는 자각하지 않는 민중 때문이며 배만과 청나라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고 구체적인 정치혁명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안휘속화보』는 진독수뿐만

究紀要』 33. 1995에서 정리되어 있으며, 裴永東, 「陳獨秀의民主政治思想」 『中國歷史研究』 31. 2004에서는 최근의 연구 성과와 경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48) 신문화 운동 이전의 진독수와 관련한 연구로는 陳万熊 『新文化運動前的陳獨秀：1875~1915』 中文大學出版社, 1982가 대표적이고 申一樊 「新文化運動 이전 陳獨秀의 活動」 『湖南大學論文集』 12.1991에서도 정리되어 있다.

49) 『安徽俗話報』를 언급한 가장 이른 시기의 연구인 沈寂 「蕪湖地區的辛亥革命」 『安徽大學通訊』 1959년 6기. 74쪽에서 ‘『獨秀文存』再版前言.1933’을 통해 이 말을 처음 인용하는데 蔡元培는 『安徽俗話報』를 기억하며 “내가 상해의 『警鐘日報』에서 일한 때 진독수군을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은 표면상 상식을 보급하지만 암중에는 혁명을 고취했다”라고 말했다.

50) 『安徽俗話報』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로 최근에 발표된 丁苗苗, 「『安徽俗話報』研究」 安徽大學碩士學位論文, 2005가 있는데 논문에서 『安徽俗話報』의 신문사의 연구에 많은 참고가 된다. 그 밖에 『安徽俗話報』를 다루었던 연구는 다음과 같다.

沈寂 「陳獨秀和『安徽俗話報』」 『歷史論議』 1980

王澤華 許祖范 「『安徽俗話報』評述」 『安徽史學』 1985년5期

馬光仁 「陳獨秀与『安徽俗話報』」 『新聞大學』, 1986

李繼承 「安徽期刊園地中最早綻開花蕾-介紹『安徽俗話報』」 『蕪湖職業技術學院學報』 1999年3期

吳悅 「陳獨秀与『安徽俗話報』」 『大學圖書情報學刊』 2005年2期

아니라 이 시기 안휘성에서 활동한 혁명과 인물들이 간행에 참가했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즉 중국 전역에 걸친 제국주의의 침략 청나라의 부패, 그리고 전통적 악속에 대한 비판 등 진보적 지식인들이 표방한 보편적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켰지만 안휘성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안휘속화보』에 실려 있는 진독수의 글도 이러한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논설뿐만 아니라 지리·역사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나타난다. 결국 이 시기의 진독수는 안휘성을 혁명운동의 중요한 무대로 인식했고 그 실천 방식 계몽 운동도 지역성에 근거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청년』의 출판이 준비될 당시 진독수는 왕맹순라는 동향인이자 유학 시절 친구의 도움으로 亞東도서관에서 잡지 출판을 계획한다. 그러나 때마침 출판사의 경영 상태가 나빠지면서 왕맹순는 군익서사의 진자수 형제를 진독수에게 소개한다. 이 인연으로 진독수는 군익서사에서 『신청년』을 출판하게 되는데 이 때 亞東도서관에서는 이미 장사조가 『甲寅』잡지를 출판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식 계보의 배경 속에서 『신청년』의 첫 출판 과정은 상하이에서 진행된다. 한편 1915년을 전후해서 이 당시의 언론을 둘러싼정치적 상황을 보면 원세개는 이미 1914년 4월과 12월에 「신문조례」와 「출판법」을 제정해 언론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출판과 관련된 환경 또한 악화되던 시기였다. 1914년 5월 도오쿄오에서 창간된 장사조의 『갑인』월간의 경우 5기인 1915년 5월 10일부터 상하이로 옮겨와 출판되지만 9기에서 원세개를 비판한 「제정을 비판함(帝政駁議)」이라는 그로 인해 10기인 1915년 10월 10일 날짜로 정간을 당하던 상황이었다. 물론 이전부터 상하이라는 공간은 대외적으로 개방되어 있었던 이유로 북경에 비해 살롱이나 사설 학술 잡지나 각종 매체 등 공공 여론과 관련된 문화적 제도들이 더 광범위하게 구비되어 있었지

만 이 같은 군벌의 통치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언론 제도의 역할은 크게 위축되기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보수적 색채가 남아 있고 당시에 군벌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봉건 왕조의 고도 북경으로 옮겨⁵¹⁾ 『신청년』을 출간하는 일은 채원배의 북경대학 개혁에 대해 장몽린이 한 비유처럼 마치 “잔잔한 물 위에 지식 혁명의 돌을 던지는 일⁵²⁾”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혁명의 동심원은 그 중심에서부터 주변으로 급속히 퍼져 나간다.

3. 『신청년』의 계몽성

그때 중국의 현황도 『신청년』 잡지의 역사 배경이 라고 말할 수 있다. 『신청년』 잡지는 전문적인 학술 이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반 청년들을 계몽하고 혁명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대중 잡지였다. 이 잡지가 출판될 무렵은 서론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원세개의 제제 활동이 진행되고 이와 아울러 일본과 소위 21개조의 매국적인 조약이 체결되었던 무렵이었다. 당시 원세개 자신의 제제 운동은 그의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 경제적 후원 세력으로서 일본을 필요로 했고 따라서 일본의 21개조 요구를 거의 수정없이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원세개의 제제 운동은 사상적으로 중국의 과거 전통사상의 부활과 정치적으로 집권 세력들의 외세의존적 자세를 야기시켰으며⁵³⁾ 반면에 여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혁

51) 주로 의미 있게 다루는 『신청년』의 북경 입성과 이 시기의 논쟁은 『신청년』연구의 시대적 분류에 의하면 상하이에서 베이징대학으로 옮겨 오는 첫 번째 이행의 시기에 포함되고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는 글 역시 이 앞두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 연구사의 시대분류는 庄森의 《飛揚跋扈爲誰雄-作爲文學社團的新青年社研究》(上海:中國出版集團東方出版中心, 2006.6) 서론 4쪽을 참조.

52) “在靜水中投下只是革命之石”, 許紀霖의 앞의 책, 102쪽.

53) 李宗一 (1989) 『袁世凱傳』 北京:中華書局, 311쪽

명세력들의 등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특히 원세개는 신해혁명을 압살한 후 전제통치를 강화하고 자신의 황제복귀를 실시하고자 사상 문화영역에서 복구의존공 역류를 일으키고 존경독경을 성행하게 하였으며 공교회, 공도회등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였다.⁵⁴⁾이때에 강유위 또한 개량파에서 보황파로 변질하여 공교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원세개의 제제 운동에 사상적으로 간접 지원하였다. 그는 잡지 『불인(不忍)』을 편집 발행하면서 기강이 단절되고 국수가 상실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복벽이 아니면 중국을 구제할 수 없다고 하며 공교를 국교로 정하여 헌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당시 공교회의 대표격인 염복⁵⁵⁾등은 연명으로 북경 정부에게 강유위의 주장을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원세개는 天壇寧法 초안에서 “국민 교육은 공자의 도를 수신대본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했다.⁵⁶⁾

원세개의 제제 운동이 일어날 무렵인 1915년 1월 일본의 21개조의 요구는 사실상 만주 내몽골 산둥 중국의 동남연해 및 양자강 유역에 대한 일본의 관리를 주장한 내용으로서 일본의 식민지화를 의미하였다. 21개조 요구는 4개월간의 긴 협상 끝에 원세개 정부에 의해 체결되었다. 일본의 조약요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이 소식이 누설되어 중국인들을 자극하다가 조약체결소식이 전해지자 중국민중의 분노는 절정에 이르렀다. 특히 민족적 굴욕감을 대변하는 신지시인들의 소리는 전국적으로 널리 울려 퍼졌다.

54)李宗一 (1989)『袁世凱傳』 北京：中華書局, 295쪽

55) 청말의 사상가로서 福建省 候官縣사람(1854~1921). 그는 1877년 영국에유학한 뒤 귀국하여 중국에 進化論의 단초를 제공했던 허슬리의 天演論등 서양 사상가들의 저서를 번역하여 변법운동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그는 신해혁명 후 楊度가 조직했던 鄉安會에 참여하여 원세개의 夏辟帝制활동에 적극 가담하는 등 보수적인 사상가로 변신하였다. 宗志文, 朱信泉 主編, 『國民人物傳』 第三卷 (北京：中華書局, 1981), 嚴夏편 참조.

56)李宗一 (1989)『袁世凱傳』 北京：中華書局, 297쪽

4. 백화문 운동에 호적의 언문일치론

신문학운동시기의 언문일치론을 대표하는 것은 호적의 언문일치론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호적은 1917년 1월 『신청년』 2권5호에 발표한 「文學改良議」에서 문학 개량의 방향을 여덟 가지로 구체화하면서 그중 한방향으로 “不避俗語俗字(속어 속자를 피하지 않는다는 주장)”를 제시했다.

하나 : 말을 효율적으로 하자 (需言之有物)

둘 : 고인처럼 말하지마라 (不模仿古人)

셋 : 문법을 준수하자 (需講求文法)

넷 : 쓸데 없는 말을 하지마라 (不做無病之呻吟)

다섯 : 옛날 말투를 따라하지 마라 (務去濫調套語)

여섯 : 典(전고)법 안쓰기 (不用典)

일곱 : 음율을 억지로 쓰지 말아 (不講對仗)

여덟 : 속어 속자를 피하지 마라 (不避俗語俗字)

민주를 주장, 독제주의 반대 (提倡民主, 反對專制獨裁)

과학을 주장, 미신을 반대 (提倡科學, 反對愚昧迷信)

신도덕을 주장, 구도덕을 반대 (提倡新道德, 反對舊道德)

신문학을 주장, 구문학을 반대 (提倡新文學, 反對舊文學)

이 “不避俗語俗字”의 논의는 흔히 “문언문을 폐지하고 구어문을 사용하지는 ‘언문 일치’를 주장한 것⁵⁷⁾이라는 식으로 이해된다. 호적 자신이 언문일치라는 말을 거듭 사용하고 있거니와 그 대목을 인용하면 다음과

57) 金學主·李東鄉 (1986) 『中國文學史 (II) 』,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217쪽

같다.

우리나라는 언문이 배치된 지 오래되었다. 불경이 들어오면서 역자들이 언문으로써는 그 뜻을 표현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까닭에 천근한 글로 번역을 했는데 그 문체가 이미 백화에 가까웠다. 그 뒤 불가의 강의와 어록에는 백화를 사용한 것이 더욱 많아졌다. 이것이 언록체의 시작이다. 宋人들에 이르러서는 강학을 할 때에 백화로 언록을 하게 되었고 이 문체가 마침내 강학의 정체가 되었다. 원나라 때에 이르러 중국 북부는 이민족(遼,金,元)의 지배를 받은 지 이미 3백년이나 되었다. 이 3백년 동안 중국에는 통속적으로 널리 행해지는 문학이 발생했다. 문으로는 『수호전』 『서유기』 『삼국지』 등의 부류가 있고 희곡은 더욱 많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중국 문학은 원나라에 가장 성하였고 시대를 뛰어넘는 불후의 작품들도 원나라에 가장 많았다 할 것이니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때 중국 문학은 언문 일치에 가장 접근했다. 백화가 거의 문학 언어가 되었다. 이 추세가 방해받지 않았더라면 중국에도 “산 문학의 출현”이 있었을 것이고, 단테와 루터의 위대한 업적이 중국에도 발생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명나라에 갑자기 중단되었다. 그리하여 이 천재일우의 언문일치의 기회는 중도에 요절하고 말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역사 진화의 눈으로 볼 때 백화 문학은 중국 문학의 정통이고 또 장래의 문학이 반드시 사용할 이기라는 점을 단언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오늘날 문을 짓고 시를 지을 때 마땅히 속어와 속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하는 것이다.⁵⁸⁾

위 인용에는 호적은 문학을 산 문학과 죽은 문학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구분의 기준은 언문의 일치 여부이다. 그에 따르면 중국문학은 周代

58) 호적 (1941) 「文學改良謠議」 『中國文學大系』 第一集 上海良友復興圖書印刷公司, 42-43쪽

의 언문일치 이후로 오랫동안 언문이 배치되었다가 唐宋의 언록체에서부터 언문 일치를 향한 추세가 나타났고 원나라에는 거의 언문 일치에 접근했지만 명나라에 들면서 그 추세가 중단되어 버렸다. 여기서 언문일치는 ‘백화’를 문학 언어로 사용할 때 가능한 것으로 상정되고 있다. 그런데 호적이 원나라의 ‘백화 문학’을 놓고 “언문 일치에 가장 접근했다”고 말하고 “백화가 거의 문학 언어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뒤집어 보면 원나라의 ‘백화 문학’이 아직 완전한 언문 일치를 이루지는 못했고 ‘백화’가 아직 완전히 문학 언어가 되지는 못했으며 따라서 원나라의 문학은 아직 완전한 의미에서의 ‘산 문학’이 되지 못했다는 뜻이 된다. ‘가장’이나 ‘거의’라는 부사의 사용을 증거로 호적이 언문일치를 양적 정도의 문제로 보고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호적의 논리는 백프로 ‘백화’를 사용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완전한 언문 일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될 터이다. 다시 말해 원나라의 ‘백화 문학’은 백프로 ‘백화’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완전한 언문 일치는 못 된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언문 일치가 또 한자의 특수성 때문에 본래적으로 볼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호적은 언문 일치를 주장했다. 이것은 단순한 오류일까. 그렇지 않다. 「文學改良謠議」에서 호적이 언문 일치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 축어적 의미에 부합되는 논의를 전개하기는 했지만, 같은 글에서 그는 이미 그의 언문일치 개념이 실제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무의식 중에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앞의 인용에서는 생략했지만 단테와 루터를 거론하는 문장에는 괄호로 묶은 상당히 긴 부연 설명이 붙어 있다.

(중세 유럽에서는 나라마다 속어가 있었지만 라틴문을 문어로 삼아 모든 저작과 서적은 그것을 사용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문언으로 글을 썼던 것처럼 말이다. 그 뒤 이탈리아에 단테 같은 문호가 나와 그 나라

의 속어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다른 여러 나라들이 이를 본받아 국어가 생겨났다. 그러므로 오늘날 유럽 각국의 문학은 당시에는 모두 속어였다. 여러 문호들이 나와 ‘산 문학’으로 라틴의 죽은 문학을 대체한 것이니, 산 문학이 있는 뒤에 언문이 일치된 국어가 있게 된다.)⁵⁹⁾

“언문이 일치된 국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 앞에서는 ‘산 문학’과 언문 일치를 연결시켰는데 이 괄호 속의 부연 설명에서는 ‘국어’와 언문 일치를 연결시키고 있다. 여기서는 논리상 ‘산 문학’은 구어(중국의 경우 ‘白話’)를 사용한 문학이지만 그 자체로 언문 일치의 문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산 문학’은 ‘국어’를 탄생시키고 언문일치는 그렇게 탄생되는 ‘국어’의 특성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화’와 ‘국어’의 차이이다. ‘백화’는 시간과 공간의 차별을 따지지 않는 집합적 개념이다. ‘백화’에는 시간적으로 보면 중세 ‘백화’도 있고 근대 ‘백화’도 있으며, 공간적으로 보면 북경 ‘백화’도 있고 광둥 ‘백화’도 있다. 그러나 ‘국어’는 근대적 표준어이다. 따라서 언문일치라는 것은 근대적 표준어를 사용하는 새로운 문체의 특성이 된다. 그렇게 보면 앞 인용문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여기서 다소 수정될 필요가 있다. 원나라의 문학이 언문일치에 거의 접근은 했지만 완전한 언문일치를 이루지 못한 것은 근대적 표준어를 사용하는 새로운 문체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언문일치가 그 이름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은 근대적 표준어 문체의 형성 문제라는 점을 확인한다. 그리고 그 근대적 표준어 문체는 기왕의 구어체와도 다르고 기왕의 문어체와 다르며 근대적 표준어의 구어체와 다른 전혀 새로운 문어체가 될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⁶⁰⁾ 그렇지만 백화운동이 문명퇴치에 큰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59) 『中國新文學大系』 第一集, 42-43쪽

60) 全炯俊 (1997 『中國語文學誌』 「백화 운동 시기의 언문 일치론에 대한 검토」 32-34쪽

『신청년』 잡지는 이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젊은 청년들을 교육하고 계몽하고자 창간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곧 『신청년』 잡지에 의한 신문화 운동의 시작이었다. 『신청년』 잡지(창간 당시에는 『청년잡지』의 이름으로 발간되었지만 1년후 제 2권에서부터 『신청년』으로 바뀜)는 창간호 권두에 이 잡지의 발행 목적을 출판사인 군익서사의 사고로 5가지 게재하고 있다.⁶¹⁾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청년들과 수신대본의 도를 토의하고 중국의 청년들에게 각국의 사정, 학술, 사상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라고 하였다. 또 평이한 문장을 가지고 고상한 이론을 설명하고 이 시대의 명사들을 초빙하여 집필하게 할 것이며 독자들을 위하여 통신란을 설치하여 질의 응답을 시행하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고는 이 잡지의 창간 목적을 정확하게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잡지의 편집 방향과 내용 그 방법 등을 대강 밝히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 청년들을 강조한 것은 창간호의 권두언으로 실린 진독수의 「경고청년」과 문맥을 같이 한다.⁶²⁾ 「경고청년」에서 진독수는 오직 청년들만이 자각하고 분투하여 진부한 사회를 새롭게 개혁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신청년』 잡지의 대상이 바로 그 잡지의 이름과 같이 젊은 청년들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 역할을 강조한 『신청년』 잡지는 당연히 청년들을 깨우치고 계몽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래서 이 시기 『신청년』 잡지의 중심적 논조는 과거 전통의 속박에서 청년들을 벗어나게 하고자 반전통

61) 『신청년』 제 1 권 제 1호, (1915.9) 『社告』, 5쪽. 여기에 인용한 『신청년』은 일본동경의 汲古書院에서 1970년에 간행한 影印本을 기본도서로 하였으며 거기에 影印된 편집체제를 그대로 따랐다. 이하의 각주에서 『신청년』 잡지를 인용할 경우 『신청년』과 발행년, 월은 생략하고 잡지의 권과 호만을 괄호안에 표시한다.

62) 진독수, 「경고청년」(1권 1호), 7쪽

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가령 근대 유럽과 중국의 현상을 비교하고 과학과 인권의 존중을 주장하며 청년들의 분투를 주장했던 고일함의 「공합국가와 청년의 자각」(1~3호)이나 진독수의 「동서민족근본사상의차이」(4호) 「一九一六年」(5호) 「내 마지막의 각오」(6호) 등은 『신청년』 창간 취지에 입각하여 그 의의를 더욱 빛내주었다. 그리고 계몽 잡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통속적인 교양 기사로서 「여성과 과학」(4호) 등을 게재하고 또 통신란을 마련하여 독자들과 질의 응답을 하여 보다 가깝게 접근하고자 하였다. 『청년잡지』는 발간 당시 대중 계몽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했지만 발행부수는 초기에 기증 교환본을 포함해서 겨우 일천여 부에 지나지 않았으며 처음 제1권 제6호(1916.2)까지는 매우 저조한 편이었다.⁶³⁾ 그리고 매월 매호를 발행하는 월간으로 6개월 단위로 권을 달리했다. 『신청년』 잡지의 창간 직후 발행부수가 저조한 것은 발행초기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래서 『청년잡지』는 1권 6호를 끝으로 약 6개월 동안 발행을 중지하고 새로운 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다.

6개월의 긴 휴간 끝에 1916년 9월 『청년잡지』는 『신청년』이란 잡지명으로 이름을 바꾸고 모양도 새롭게 하여 전체적으로 새로운 모습속에 제2권 제1호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즉 표지의 모양은 붉은 글씨로 잡지의 중앙 상단에 『신청년』이라 쓰고 그 아래에 검은색으로 LA JEUNESSE라고 프랑스어 표기를 하였다. 그 아래에 다시 ‘陳獨秀先生主撰’이라고 쓰고 바로 그 아래 표지의 중앙지면에 주요한 목차가 실려 있다. 가장 밑에는 붉은 글씨로 권과 호 그리고 발행출판사(群益書社)가 기록되어 있다.

63) 藤田正典, 久保田交次, 島本信子 編寫 (1977), 新青年總目録五四運動文獻目録 東京:汲古書院, 2쪽

창간시기에는 『신청년』의 편집이 진독수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시기이며 지리적으로 상하이를 중심으로 발행되던 시기이다. 주요 필자로 진독수 자신을 비롯하여 고일함, 유수야, 익백사, 오지회 등과 함께 유반농, 소만희, 호적 등의 진보적인 문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 시기는 온건 계몽 단계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진독수는 민중적인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직접적인 정치 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은 소모적일 뿐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보았다. 이는 신해 혁명과 신문화 혁명에 직접 가담했던 체험에 의한 판단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진독수는 중국적인 상황에서는 우선 민중적인 각성이 필요하며 그 각성이 어느 정도 충분히 성숙했을 때 비로소 직접적인 정치적 행동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각성을 추구하는 방법을 매우 점진적이고 온건한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런 이유에서 이 시기를 온건 계몽 지향기로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진독수는 현실 정치와의 거리 유지를 첫번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당시 중국의 가장 큰 정치적 관심사이었던 원세개의 제제운동은 물론 중국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 백색 테러의 난무상 각 지역 군벌을 중심으로 벌어지던 반원운동 1916년 원세개 사망과 뒤이은 공화정 복귀 딛기서와 풍국장의 실권 장악 등에 이르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진독수 자신은 물론 어떤 필자도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시사적인 문제들은 「국외대사건」과 「국내대사건」을 통해 사건 보도의 차원에서 부차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⁶⁴⁾ 이는 이전시기의 혁명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은 바로 민중적 각성 부재였다고 보고 직접적인 정치 행동 고취로부

64) 國外大事記와 國內大事記는 제4권 이후부터는 게재되지 않는다. 아마 이는 월간잡지로서는 보도의 신속성을 기할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개혁지향노선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필자들이 시사문제를 직접 다루게 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듯하다.

터 후퇴하여 온건한 문화 운동으로 방향을 돌렸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온건한 계몽 지향이라는 방향의 설정은 당시의 중국적인 역사적 제 조건을 고려할 때 아직 정치적 변혁 운동 성공의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 전단계로서 계몽 운동이라는 문화적 변혁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진독수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진독수가 설정한 계몽운동의 구체적 목표는 국민적인 의식 개혁이었다. 의식 개혁이라는 단계가 생략된 직접적인 정치 운동은 성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칫하면 혁명운동의 싹을 초기 단계에 지나치게 강한 의풍에 노출시켜 장기적으로 혁명 자체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던 것이다. 이러한 온건하고 우회적인 방향으로의 전환은 진독수 자신의 혁명에 과한 체험과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동시에 당시 지식인들의 혁명에 대한 회의와 패배 의식으로 반영하기도 한다.⁶⁵⁾

진독수는 계몽의 일차적인 대상을 기성세대가 아닌 청년 계층으로 설정하였다. 청년계층은 가장 각성의 가능성과 효과가 큰 계층으로서 차후의 정치 개혁 운동을 담당할 계층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즉 변혁의 주체를 청년 계층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방향의 설정은 『신청년』 창간사라고 할 수 있는 「경고청년」이나 제2권 1호에 발표된 「신청년」 등에 집약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아울러 진독수는 교육에 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⁶⁶⁾

청년 개개인에게 역사적 책임에 대한 자각과 변혁의 주체로서의 자아

65) 김영구 (1990) 「『신청년』 (新青年) 편집 방향의 변화」 <중국학보> 30권0호, 153-176쪽

66) 진독수는 제1권2호에 「今日之教育方針」, 제3권5호에 「近代西方教育」과 같은 글을 발표하여 교육의 이념과 원칙, 제도적 측면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진정한 서구식의 교육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등 교육 개혁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1921년 4월 광둥정부의 교육위원장으로 초빙되었다.

확립을 촉구하는 계몽운동의 구체적인 노선은 신사상 운동과 신문화 운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보다 중점이 두어졌던 방향은 신사상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신사상 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국적 전통에 대한 비판과 서구 문화에 대한 소개였다. 유교적 전통으로 대표되는 중국적 전통과 제도에 대한 회의와 비판은 전 호에 걸쳐 가장 두드러지는 경향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년』의 반유교적 활동은 사상운동의 차원이면서 동시에 원세개의 지원 아래 진향되던 강유위와 공교회의 尊孔운동에 대한 우회적인 공격이기도 했다.⁶⁷⁾ 진독수는 물론이고 고일함 이백사 등이 이에 대한 글을 활발히 발표하고 있으며 후기로 갈수록 비판의 강도가 더욱 강해졌다. 제2권 4호에 발표된 진독수의 「공자의도와 현대 생활」과 제2권 6호에 발표된 오위이의 「가족 제도위 전제주의근거론」은 유교는 더 이상 중국의 현실을 구속하는 논리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한 글로서 신 사상운동의 한 면모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러한 중국적 전통에 대한 회의는 중국의 국민성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확대되어 제2권 6호에 발표된 光晟의 「중국 국민성과 그 약점」과 같은 글에서는 매우 자기 비하적인 방향으로까지 나아가기도 했다. 한편 전통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이 이시기에 활발히 발표되고 있기는 하지만 필자가 제한되고 있는 데다가 보수적인 지식인들의 강한 반발을 우려하고 있는지 원칙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대부분이고 극단적인 공격으로까지는 호르지 않고 있다. 중국적 전통에 대한 비판은 사실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는 진보적인 사상 내지 신사상 고취를 위한 전단계 내지 정지 작업으로서의 의의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⁶⁸⁾

67) 佐伯有一, 野村浩一, 『中國現代史』 266-267쪽.

68) 이 당시 문화 운동의 전반적 상황에 대해서는 앞의 책 『中國現代史』 제 13장 신문화 운동이 비교적 잘 요약하고 있다.

새로 발간된 제2권 제1호(1916.9)에 게재된 진독수의 권두논문 「신청년」은 잡지명을 『신청년』으로 바꾼 편집자의 의도를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대조의 「청춘」이란 글은 첫 改題호의 내용을 더욱 알차게 해주었다. 당시 이대조는 1916년 4월 일본 유학에서 귀국하여 이때부터 『신청년』의 신문화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 운동을 질적으로 높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년』 관계자들을 크게 고무시켜 주었다. 그는 이글에서 모든 삼라만상의 현상을 인생의 청춘과 늙음에 비유하고 한번 이룩되면 한번 무너지게 되는 것이 천지의 도이고 一陰一陽이 易의 도라는 것을 천명하며⁶⁹⁾ 이 양자간의 상호 작용을 중시하는 변증법적인 그의 초기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무렵 제제 운동의 주인공이었던 원세개가 사망하고(1916.6) 여원홍이 대총통의 자리를 계승 하자 당시 보황파의 거두로서 공교회 회장이었던 강유위는 그에게 유교를 국교로 정하고 그것을 헌법에 명문화할 것을 上書하였다. 사상적으로 제2의 원세개가 출현한 것이다. 원세개 사망후에도 계속된 전통 보수세력의 공교 운동은 당연히 반전통 운동의 신문화 운동관계자들을 크게 자극하였으며 『신청년』 잡지는 이 운동에 대하여 맹렬하게 비판을 시작하였다. 이 비판이 성봉장은 물론 진독수였다. 진독수의 「駁康有爲致總統總理書」(2권 2호), 「헌법과 공교」(2권 3호), 「공자의도와 현대생활」(2권 4호), 「再論공교문제」(2권 5호)등은 반봉건윤리사상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첫째, 전통 사상인 유교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으며 유교 존중은 곧 復辟으로 통하며 봉건적인 황제 사상과 직결된다는 것이다.⁷⁰⁾ 둘째, 尊孔사상의 강요와 유교의 국교화 운동은 사상의 자유 원칙에도

69)李大釗 「청춘」第二卷 1号 . 13쪽

70) 진독수, 「憲法与孔教」(2권 3호), 235-237쪽; 「孔子之道与現代生活」(2권4호), 364쪽.

위배될 뿐만 아니라 종교 신앙의 자유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⁷¹⁾ 아울러 유교가 과연 종교로서 간주될 수 있는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다. 셋째, 유교는 봉건시대의 윤리와 도덕으로써 오늘날 현대사회의 생활에 도저히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는 새로운 도덕과 사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독수의 이와같은 반봉건 유가사상 투쟁은 당시의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으며 신문화 운동 관계자들의 많은 지원을 받았다. 가령 吳虞는 「독순자서후」(3권 1호), 「소극적 혁명의 논장」(3권 2호) 등에서 진독수가 유교를 비판하듯이 순자와 노장사상을 비판하였다. 즉 오우는 존군 비신 우민을 종지로 하고 있는 순자사상을 비판하면서 유교가 오늘의 중국 사회에禍를 미치는 것과 같이 바로 순자도 중국에 큰 해독을 주었으며 순자 비판을 통해 유교도 함께 비판하였다.⁷²⁾ 그리고 그는 프랑스인과 중국인을 비교하여 중국인들은 프랑스인에 비하여 훨씬 혁명파에 소극적인데 그 대표격은 노장파들이라고 하였다.⁷³⁾ 즉 노장파들은 유교파들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서도 계급적인 봉건사상을 강화하여 결국 위아래 입술이 짝을 이루듯 유교와 함께 혁명에 소극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노선은 「광인일기」(4권 5호)로부터 시작하여 일련의 소설과 「나의節烈觀」(5권 2호) 등과 같은 雜感文(여러 가지 감상을 적은 문장)을 통하여 봉건주의를 예리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광인일기」에서 광인의 입을 빌려서 사람을 먹는 사회의 암흑상을 규탄한 다음 중국 오천년의 역사 곧 오천년의 食人의 역사를 가진 나를 봉건 역사에 비유하면서 食人인 나를 철저히 파괴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청년들에게 호소

71) 진독수, 「駁康有爲致總統總理書」(2권 2호), 145쪽; 「再論孔教問題」(2권 5호), 447-448쪽

72) 吳虞 「讀荀子書后」(3권 1호), 13쪽

73) 吳虞, 「消極革命之老莊」(3권 2호), 121쪽

하여 강렬한 충격을 주었다.⁷⁴⁾ 또한 그의 일종의 수상록이면서 독특한 문체인 ‘雜感’이라는 형식의 글을 통하여 예리한 사회 비평을 하였다. 그는 사회의 일상적인 사건에 신속하게 반응하면서 시기와 테마에 따라 단문 형식을 빌어 부패하고 침체된 당시의 중국 사회현상을 비판하였다.⁷⁵⁾

1917년 1월 『신청년』을 주간했던 진독수는 북경대학교 총장인 채원배의 초빙을 받아 북경대학 문과학장에 취임하였다. 따라서 『신청년』 잡지도 상해에서 북경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신청년』 잡지 주위에는 북경 대학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모여 들면서 새로운 변모를 하게 되었다. 그중에 한 사람이 당시 미국에서 막 귀국했던 호적이다. 그는 그의 유명한 「文學改良芻議」(2권 5호)를 발표하여 관심을 모으면서 봉건 문학에 대한 문학 논쟁을 일으켰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봉건적 윤리 사상의 투쟁과 비판에 이어 봉건 문학에 대한 비판이었다. 호적은 여기에서 현대 중국 문학의 타락한 원인을 한마디로 실질보다 문체를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이 폐단을 극복하려면 문학의 의미와 실질 그리고 문체 속에 포함된 정신의 유의해야 한다고 하였다.⁷⁶⁾ 이어서 그는 그의 주장을 8항목에 걸쳐 자세하게 진술했다. 특히 그는 혁명이라는 말대신 개량이나 추의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은 문학 문제를 문학에 철저히 국한하고자 했던 그의 의지였다.⁷⁷⁾ 이에 진독수는 호적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그것을 폭넓게 확대시켜 정치와 정신영역에 까지 결부시켜 문학 혁명으로 발전시켰다.⁷⁸⁾ 이것은 『신청년』 잡지를 대중의 계몽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진독수의 입장과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 『신청년』

74) 魯迅, 「狂人日記」(4권5호). 493쪽

75) 신일섭 「『신청년』 잡지의 성격변화연구」 『역사학연구』 5권0호 7쪽

76) 호적, 「文學改良芻議」(2권 5호), 467쪽.

77) 周策縱 著, 曹秉汗 譯, 『5·4운동』(서울: 광민사, 1980), 255쪽

78) 진독수, 「文學革命論」(2권6호), 563쪽

제3권 제1호(1917.3)부터 6호까지의 내용도 주로 문학 혁명론에 관한 것이었다. 가령 유반농의 「나의 문학 개량관」(3호) 「시와 소설의 정신상에 혁명」(5호) 호적의 「역사적 문학관념론」(3호) 등은 모두 문학의 고전적 형식을 타파한 새로운 문학관의 표현이었다. 또한 잡지 애독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독자론단’란을 마련하여 문학에 관한 여러 의견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독자 대중들에 대한 『신청년』의 각별한 관심은 잡지 애독자들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발행부수도 1만5천~6천부에 이르게 되었다. 문학 혁명론뿐만 아니라 유교 비판의 글도 계속되었다. 유교 비판의 글로써 편집자였던 진독수의 글이 가장 많이 실려있다. 그의 「구사상과 국체문제」(3호) 「근대 서양교육」(5호), 「복벽과 존공」(6호) 등은 유교비판의 선봉적인 글이었다. 또한 2호에 진독수는 「러시아혁명과 우리 국민의 각오」라는 글을 게재, 러시아의 2월혁명에 대하여 『신청년』의 필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발표하였다. 그는 이 글에서 중국은 연합국측에 가담하여 독일의 군주주의와 침략주의에 대항해 싸워야 한다고 하였다.⁷⁹⁾ 이 무렵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특히 吳虞는 진독수의 유교 비판에 동조하고 이를 더 확장하였다. 그는 중국의 전통사상 가운데 하나인 노장사상을 집중적으로 비판하였다. 또한 제3권 거의 각호마다 호적의 글이 발표되었는데 주로 문학에 관한 글이나 번역서, 시 등이 게재되어 있다. 제3권은 1917년 8월 제 6호를 끝으로 중단되었다. 그리고 약 4개월 동안 휴간되었다가 1918년 1월 『신청년』은 제4권 제1호를 복간하였는데 이때부터 『신청년』 잡지는 새로운 편집 형태 즉 편집부 동인에 의해서 원고 집필과 번역이 이루어지고 외부로부터 원고를 받지 않은 완전한 동인잡지의 형식을 갖추었다. 또한 편집 체제에 있어서 전에는 약간의 문어문을 백화문과 함께 사용하였는데 제4권부터는 완전 백

79) 진독수, 「俄羅斯革命與我國民之覺悟」(3권 2호), 117쪽

화문으로 바꾸었다. 이것이 당시 교육부가 모든 글을 백화체로 통일하자는 정책의 일환이었는데 『신청년』의 백화 운동과 밀접한 관계위에서 이루어졌다.⁸⁰⁾ 전술했던 노선의 「광인일기」도 이때에 발표되었는데 특히 그는 이때부터 『신청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 다음 제5권부터 본격적인 집필진에 참여하여 예리한 필봉을 가히기 시작하였다. 제4권의 마지막 호인 제6호(1918.6)는 19C 노르웨이 극작가인 ‘임센특집호’를 마련하였다. 이 특집호를 마련한 것은 임센이 사회적 인습의 편견을 고발하고 개성 해방을 강조했던 점 때문이었다.⁸¹⁾ 즉 『신청년』은 임센을 통해서 개인의 자각과 개성 해방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이것은 또한 『신청년』의 주요한 주장이었다. 그리고 『신청년』은 편집 동인과 독자들을 보다 밀접하게 하고자 종래 독자와의 질의 응답란을 마련하여 기고자들을 발굴하기도 했던 통신체제를 지상토론형식으로 성격을 바꾸어 진보적인 독자들을 『신청년』 주위에 결집하게 하였다. 제4권부터 새로운 기고자로 주작인과 제2권 제1호에 「청춘」이란 글을 한번 발표했던 이대조의 본격적인 활동이 눈에 띈다. 제5권은 제4권 제6호에 이어서 1918년 7월에 제1호를 처음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1918년의 후반기는 세계사적으로 격동했다. 8월에 연합국의 시베리아 출병, 11월 독일의 항복과 세계대전의 정치문제나 유교사상, 중국의 전통 문화와 문학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은 여전이 하였다. 제5권 제1호에 게재된 진독수의 「금일 중국의 정치문제」 「수상록」 (1,2호)이나 「우상과괴론」 (2호), 「對東方記者的答問」 (3호) 「貞操문제」 (1호) 「문학문제의 토론」 (2호) 「미국의 부인」 (3호) 「문학 진화관념과 화곡개량」 (4호) 등은 대표적이다. 『신청년』 제5권 제4호는 그전에 논의했던 문학혁명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회

80) 周策縱 著, 曹秉汗 譯, 『5·4운동』 257-258쪽

81) 호적, 「易卜生主義」 (4권 6호), 583쪽

극에 관한 집중적인 글을 게재하였다. 호적을 중심으로 부사년, 장호재등이 희극에 관한 그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제5권 제5호는 전과는 달리 당시의 국제적인 조류를 반영하여 세계사적인 서건과 정치문제를 많이 다루었다. 즉 제1차 세계 대전의 종전에 즈음하여 전재의 성격을 설명한 3편의 연설분-이대조의 「서민의 승리」, 채원배의 「노동자의 신성함」, 도이공의 「구라파전쟁이후의 정치」-과 이대조의 「서민의 승리」, 진독수의 「克林德碑」, 채원배의 「유럽 전쟁과 철학」 등 당시 정치적 상황의 자기 견해를 표명한 글들이 게재되었다. 특히 이대조의 「서민의 승리」는 같은해 11월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유럽 대전승리경축기념회에서 그가 연설했던 「서민의 승리」를 보다 상세하게 기술한 것으로 당시 중국에서 최초로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러시아 10월 혁명을 찬양하고 중국혁명의 전도를 예시하였다. 그는 이글에서 1차 대전의 승리를 연합국의 무력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전세계의 서민의 승리이며 전승을 축하하는 것도 일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서민을 위해서 축하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⁸²⁾ 더 나아가 이것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의 승리 곧 서민의 승리이며 사회적으로 자본주의의 패배이자 노동주의(사회주의를 지칭)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하였다.⁸³⁾ 그가 말한 서민이란 곧 지배를 당하는 계급으로서 노동자 계층을 의미하였다. 환언하면 그는 중국 신문화운동의 지식이 가운데 최초로 역사적인 상황을 마르크스주의의 계급적 인식의 바탕위에서 기술하기 시작하였다.

『신청년』은 제5권 제5호를 기점으로 새로운 내용과 성격을 띄게 되었다. 즉 그것은 그 이전과는 달리 신문화 운동을 주장하던 사람 가운데

82) 李大釗 「庶民的胜利」 (5권 5호) 487쪽

83) 李大釗 「庶民的胜利」 (5권 5호) 494쪽

반제국 주의와 반봉건 반군벌의 정치적 성격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대조와 같이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중국 문제를 고찰하려는 사람이 등장하였다. 이대조는 북경대학에서 마르크스 연구회를 조직하여 마르크스주의 학습을 추진하였고 『신청년』을 통해서 마르크스주의를 선전하였으며 『신청년』 독자들 가운데 많은 마르크스주의적 지식 분자들을 모이게 하였다. 『신청년』 제5권 제5호에서 이대조가 러시아 혁명을 찬양한 글이나 마르크스주의의 계급론적인 글이 발표될 무렵 중국의 지식 계층은 사상적으로 많은 변화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아울러 새로운 형태의 운동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즉 이것은 지금까지 중국의 전통 문화와 사상 문화를 비판하던 신문화 운동의 차원에서 러시아 10월 혁명의 성공으로 인하여 보다 현실적인 정치 운동으로 발전이었다. 다시 말하면 문화 운동이라는 일종의 관념적 사상적 운동에서 실천적으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치운동으로 변화 발전하였다. 따라서 『신청년』 잡지의 신문화 운동은 정치적 변화를 시도하는 정치운동과 결합하게 되었다. 그 구체적인 예로써 『신청년』의 주편집자였던 진독수는 당시 마르크스주의를 공식적으로 중국에 소개하고 정치적 지도력을 겸비하고 있던 이대조와 함께 『매주평론』(每週評論)을 창간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신청년』이 창간될 때 정치를 말하지 않는다는 공약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아 자유롭게 정치를 논하며 말하고자 『매주평론』을 창간하였던 것이다. 『신청년』이 사상 문화의 이론 투쟁에 치중해 온 반면 『매주평론』은 『신청년』의 월간보다 신속하게 매주 발간하면서 현실 정치의 비판에 중점을 두었다.⁸⁴⁾ 따라서 이 두 출판물은 이론 중심과 현실 중심이라는 관계에서 상호 긴밀하게 보완적인 역할을 하였다. 당시

84) 丁金林 主編 (1990) 「第六章 五四時期的新聞事業」 『中國新聞事業史』 (中國武漢：武漢大學出版社) 173쪽

이대조의 문필 활동은 진보적인 지식인으로써 『신청년』과 『매주평론』에 시국 비판의 글뿐만 아니라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폭로하여 5.4운동의 사상적 준비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당시 중국 지식인들의 사상적 변화와 중국내외의 급격한 정세 변화는 『신청년』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지금까지 『신청년』을 진독수 자신이 혼자 직접 책임편집하였던 것을 제6권 제1호부터 진독수, 진현동, 고일함, 호적, 이대조, 심윤목 등 6인이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차례대로 교대하여 편집을 담당한다고 발표하였다.⁸⁵⁾ 그러나 상기의 6명만을 편집위원회의 멤버로 제한하지 않고 주작인, 심전사, 노신등도 편집위원회에 참가하였다. 이와 같이 『신청년』의 편집 체제의 변화는 중국내외의 새로운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보다 폭넓은 지식인들을 흡수하여 다양한 이론과 신사상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교대로 책임 편집을 하게 하는 것은 각호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의미도 포함되었다.

『신청년』 제6권 제1호에서 진독수는 편집위원회의 견해를 통일하여 「本志罪案之答辯書」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당시 원세개의 뒤를 이은 단기서정권의 정치적 지원그룹인 안복구락부(安福俱樂部)가 그들의 기관지 『正言報』를 통해 『신청년』의 신문화 운동에 대하여 여러 비난과 공격을 행하자 여기에 대한 일종의 답변이었다. 이것은 또한 정치, 사회, 문화의 개혁을 통해 당시의 정치에 대항하고자 하는 『신청년』의 통일된 사상적 지도력이 표현이었으며 『신청년』 독자들에게 대한 확고한 신념의 주장이었다. 진독수는 답변서에서 『신청년』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두가지 종류 분류하였다.⁸⁶⁾ 즉 하나는 『신청년』을 아끼는 의미에서 다른 하

85) 신청년 제6권 제1호의 권두에 상기의 6명은 제1호부터 6호까지 차례대로 1명씩 편집을 담당한다고 미리 발표하고 있다. 「本杂志六卷分期编辑表」(6권 1호), 4쪽

나는 『신청년』을 반대하는 의미에서 비난한 것이라고 하였다. 『신청년』은 전자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 하였다. 즉 진독수는 『신청년』의 내용이 중국의 전통적 윤리와 예술, 종교, 문학, 정치를 파괴하였다는 반대파의 주장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다. 다만 『신청년』은 데모그라시(민주)와 사이언스(과학)를 옹호한 죄가 아닌 죄는 인정하였다. 그러나 덕선생을 옹호하려면 구윤리(유교, 예법, 정절)와 구정치를 반대하지 않을 수 없으며 賽선생을 옹호하려면 구예술, 구종교를 반대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청년』은 德, 賽 이 두 선생을 옹호한 죄외에 어떠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⁸⁷⁾ 제6권 제1호에서 『신청년』의 입장을 밝힌 답변서에 이어 제2호에서 『신청년』은 편집부의 공동 명의로 「新靑年編輯部啓事」를 게재하였다.⁸⁸⁾ 이 공동명의로 성명은 북경대학의 진보적인 교수들이 『신청년』에 깊이 관여하여 급진 개혁적인 사상과 글을 게재하는 것에 대한 세간의 비난에 대하여 북경대학과 『신청년』의 두 관계를 명확하게 해명하여 답한 것이었다. 즉 북경대학의 몇 교수들이 『신청년』 잡지에 참여한 것은 완전히 개인적인 자유와 활동에 의한 것이며 북경대학과 조금도 관계없다고 대답하였다. 1919년에 들어와서 즉 『신청년』 잡지가 제6권을 발행될 처음에는 이미 『신청년』을 지지하는 사람의 수가 그 전보다 훨씬 많았다. 이런 논쟁은 『신청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이었나를 말해 준다.

그러나 『신청년』을 반대하는 보수파들의 공격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한 답변서와 같이 편집자가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혹은 편집부의 공동성명으로 반격하였으며 『신청년』의 정당성 주장에 노력하였다. 특히 이 무렵 진독수의 전투적인 반정부 논설이나 단평은 『신청년』을 통하여 유

86) 진독수, 「本志罪案之答辯書」 (6권 1호), 15쪽

87) 진독수, 「本志罪案之答辯書」 (6권 1호), 16쪽

88) 「신청년편집부기사」 (6권 2호), 106쪽

감없이 발휘되었으며 그는 문필 활동뿐만 아니라 5.4 운동의 실천적 활동에도 급진적 민주주의자로서 적극 참가하였다. 『신청년』의 편집위원 가운데 진독수와 이대조는 현실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중국 문제에 혁명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갔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 접근 방식에 대하여 호적은 제6권 제4호에 「實用主義 (pragmatism)」라는 장문의 글을 발표하여 분명히 그들과 다른 인생관과 역사관을 천명하였다. 즉 그는 이 글에서 (윌리엄 제임스 William James)의 실용주의론을 소개하면서 점진적이고 개량적인 역사 방법론을 주장하였다. 그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 자신은 비관적 염세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낙관적 낙천주의도 아닌 창조적인 淑世주의의 인생관이라고 말하였다.⁸⁹⁾ 달리 말하면 현실의 세계를 지나친 비관이나 낙관으로 보지 않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의 현실 세계관의 표현이었다. 결국 이와 같은 그의 인생관과 역사관은 5.4 운동 이후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의 편집동인들과 차이 때문에 자체 내에서 분열의 계기가 되었다. 『신청년』의 제6권 전체에서 노신과 이대조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노신은 제4호에 「孔乙己」를 제5호에 「樂」을 발표하여 소설가로서 지위를 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사라는 필명으로 「수감록」을 매호마다 발표하여 구사상에 대한 그의 예리한 공격을 계속하였다. 이대조는 제2호에 「전후의 부인 문제」를 써서 청년 문제와 함께 부인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5.4 운동 직후에 발간된 제5호와 제6호에 「나의 마르크스주의」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당시 중국의 진보적인 사상계가 마르크스주의에 깊이 경도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었다.⁹⁰⁾ 뿐만아니라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신청년』의

89) 호적, 「實驗主義」 (6권 4호), 400쪽. 호적은 혁명적이 아닌 점진적인 개량으로 세상을 맑게 한다는 의미에서 淑世主義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90) 王京生, (1987) 「『新青年』 再評價」, 『中國現代史』 (北京: 中國人民

신문화 운동이 정치적 이념성을 가지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3장 『소년』, 『청춘』 과 『신청년』 비교

1. 서구 문명에 대한 태도 비교

잡지 내용으로 보면 서구에 대해 태도는 진독수와 최남선은 같다고 생각한다. 서구 문명에 압도당한 태도가 두드러진다.

최남선이 근대 계몽기에 이룩한 업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종합잡지 『소년』 과 『청춘』 을 창간하고 그 잡지를 통하여 서양 문학 작품을 집중적으로 번역하여 소개하였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업적이다. 19세기 말엽부터 한국에서는 서양의 여러 나라에 대하여 알고 싶은 욕구에서 주로 서양의 역사서와 지리서를 번역하여 출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서구 열강의 위협을 받고 있던 이 무렵 건국 영웅이나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호걸에 관한 외국 문헌을 번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초엽 최남선은 소설과 시 그리고 수필 등 외국 문학 작품을 집중적으로 번역함으로써 이 무렵 번역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의 외국 문학 작품 번역은 좁게는 한국 근대 문학, 넓게는 신문화가 성장하는 데 굳건한 토대가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남선은 비단 영미 문화권에 속한 작품뿐만 아니라 프랑스·독일·스페인·러시아 등 유럽 문학 작품도 폭넓게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최남선은 『소년』 창간호부터 ‘소년사전’이라는 고정 난을 만들어 『러시아를 중흥시킨 페터대제』 라는 글을 몇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이 글에서 그는 포르투대제가 유럽의 여러 나라를 순방하며 문명개화된 모습을 보고 러시아에 돌아와 그대로 시행한 점을 무엇보다도 높이 평가한다.

문명 개화를 꿈꾸는 최남선에게 유럽의 선진 국가를 향하여 총력을 기울이는 러시아의 황제 표트르의 모습은 그야말로 본받아야 할 이상적인 인물이었다. 최남선은 『러시아를 중흥 식힌 페터대제』의 전반부를 본문 활자보다 두세 배로 크게 키워 시각적으로 강조한다. 또한 후반부도 글자마다 방점을 찍어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만큼 최남선은 표트르 대제의 개혁 정신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이렇듯 최남선에게 번역이란 서양 문물을 실어 나르는 거룻배와 다름없었다. 서양 문물이 바로 눈앞에 놓여 있어도 거룻배 없이는 그 물건을 강 이쪽 편으로 운반해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신문화 운동을 일으키고 ‘세계적 지식’과 호홉하기 위하여 민족의 귀중한 옛 책들을 다시는 간행하는 한편, 외국 작품을 한글로 번역하여 널리 소개하기 시작하였다.⁹¹⁾ 조선은 번역 문화의 전통이 비교적 약한 편이다. 최남선의 번역은 일본 것을 다시 번역한 것이었지만 그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의 위기 의식이 투영된 것이다. 최남선의 서구 문명에 대해 태도는 『청춘』에 연재된 서구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다. 『청춘』에는 『너 참 불상타』(유고, 1호, 1914.10), 『갱생』(톨스토이, 2호, 1914.11), 『실락원』(밀턴, 3호, 1914.12), 『돈기호전기』(세르반테스, 4호, 1915.1), 『켄터베리기』(초서, 6~9호, 1915.3~1917.)가 연재되었다. ‘세계문학개관’이란 제목으로 총5편의 서양 고전이 소개된 것이다. 축약본의 형태로 된 이들 서양소설의 존재는 자못 중요해서 이제 근대 한국 문학은 배우고 따를 만한 모범을 갖게 되었다.

최남선은 일본보다는 서구 자본주의 문명과 가치관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귀국 전에는 『대한유학생회학보』, 『대한학회월보』에 「사전화성돈전」, 「자유의 신에게」 등을 실어, 위싱턴의

91) 김옥동, (2009)「번역가로서의 최남선」, 『외국문학연구』 제35호, 119쪽

일대기와 자유의 여신상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자유사상’을 소개했다. 귀국 이후에도 『소년』이나 『청춘』을 통해 「로비슨 무인절도표류기」, 「전기왕 에디슨의 소년 시절」 「프랭클린 좌우명」, 「미국의 학생은 범사가 다 실제적」 등을 소개했다. 이런 번역물의 선택 과정은 서구화된 일본 모델을 비판적인 입장에서 타자화할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해주었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최남선의 입장에서 보면, 한말 일제 초의 상황에서 서구 근대문명은 물론 일본이 이룬 ‘근대’ 역시 아직은 요원한 목표였다. 최남선은 한말 일제 초 서구의 문명과 문화를 모델로 삼았지만 당장 이를 이룰 수 없기에, 그 전단계로서 뜻을 세워야 한다는 ‘입지’를 소년층에게 강조했다.⁹²⁾

진독수는 『청년잡지』 창간호에 발표한 「프랑스인과 근대문명」⁹³⁾에서 인도와 중국을 대표로 하는 동양 문명은 고대 문명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반면, 유럽 문명, 즉 서양 문명만이 진정한 ‘근대 문명’이라 주장하였다. 이어 그는 「동서민족 근본 사상의 차이」⁹⁴⁾에서 서양 민족의 근본사상을 ‘전쟁 본위, 개인 본위, 법치와 실력 본위’로, 그리고 동양 민족의 근본 사상을 ‘안식 본위, 가족 본위, 감정과 허식 본위’로 개괄하면서 동양의 민족성 및 사회 구조의 열등성과 폐해를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근대서양교육」⁹⁵⁾에서 “서양 각국은 현재 부국강병 하였을 뿐, 문물 제도와 학술사상 모두가 중국보다 반드시 나은 것은 아니다”고 여기는 중국인들의 생각을 비판하면서, ‘서양의 갖가지 문명 제도에는 중국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의 교육은 서양을 본받지 않으면 안

92) 류시현, (2009) 『최남선연구』, 역사비평사 2009.07.17. 56~57쪽

93) 진독수, (1915) 「프랑스인과 근대문명」, 『청년잡지』 제1권 제1호, 1915년9월.

94) 진독수, (1915) 「동서민족 근본사상의 차이」, 『청년잡지』 제1권 제4호, 1915년12월

95) 진독수, (1915) 「근대서양교육」, 『新青年』 제3권 제5호, 1917년7월

된다”고 주장하였다.⁹⁶⁾

서양 문화 우월론의 제창자인 진독수는 ‘동양 문명은 고대 문명이고 서양 문명만이 근대 문명’이라 여기는데, 여기에서의 ‘근대’는 ‘고대’보다 우월한 가치를 지닌다. 정치와 경제, 도덕과 학술 모든 면에서 서양은 동양에 앞서 있으며, 이 모든 면에서 서양의 방식은 동양과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절충이나 조화는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최남선에게는 서구 문명에 대한 논의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진독수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2. 전통 비판

최남선과 진독수는 전통 비판에 대해 비교하면 차이를 볼 수 있다. 중국 전통 사상은 유교 사상(공자사상)이었다. 봉건 사회부터 공자사상은 국가의 전통사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교도 국교이었다. 진독수는 근대 사회 민주와 과학을 제창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유교 비판을 하였다.

그 당시에 원세개의 제제 운동 움직임과 공자를 존중하는 복구 사조가 일어나고 있었다. 더 나아가 베이징 정부가 공개적으로 하늘과 공자묘에 제사를 올리는 현실은 신지식인들의 불안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일부 신지식인층이 반봉건적인 계몽운동, 즉 신문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진독수는 『신청년』의 창간호 「청년에게 고함」이라는 글에서 청년들에게 자주적·진보적·세계적·실리적·과학적인 청년이 되라고 하였다. 과학뿐만

96) 陳崧 編(1989), 五四前後東西文化問題論戰文選(中國社會科學出版社.), 41쪽.

아니라 민주를 제창하기 위해서 유가(儒家) 학설과 공자를 존경하는 사상을 비판하고, 과학을 제창하기 위하여 세계의 저명한 과학가의 발명과 업적을 비롯하며 『물종기원』과 의학 등 여러 분야에 관한 지식을 『신청년』에 소개하였다.

문학혁명론뿐만 아니라 유교비판의 글도 계속되었다. 유교 비판의 글로써 편집자였던 진독수의 글이 가장 많이 실려 있다. 그의 「구사상과 국체문제」(3호) 「근대 서양 교육」(5호), 「復辟과 尊孔」(6호)등은 유교 비판의 선봉적인 글이었다

1913년~1915년, 진환장, 강유위 등 보수파 학자의 대두에 의해서 공자의 가르침을 국교로 하려는 공교운동이 일어나고, 원세개의 체제가 외쳐지는 가운데 신문화 운동이 개시되었다. 「민주와 과학」을 기치로 내건 잡지 『신청년』을 중심으로, 중국의 사회와 문화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중국 봉건 체제의 기초가 되어있는 가족 제도와 그것을 지지해 온 공자의 가르침(유교)을 부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진보적 지식인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진독수는 「공자의 길과 현대 생활」등 많은 문장에서 공자의 사상이 봉건적인 것으로서 민주주의와는 양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오우는 「유교의 해독은 홍수 맹수」와 같이 심한 것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하고, 노신은 유교는 「사람이 사람을 먹는」가르침이라고 해서 『광인 일기』 중에서 사람을 먹은 적이 없는(유교에 침해되지 않은)어린이를 구하라고 하였다. 이외에 호적, 이대조, 주작인, 전현동, 역백사 등 많은 사람들이 유교의 타도를 주장했다.

이상 언급한 문장은 다 『신청년』에 발표했다.

최남선은 일본 유학을 다녀와서 일본 시가의 새로운 동향에 맞는 신체를 시작했고, 일본에서 배워온 신문명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어려서부터 대단한 선각자였다. 그는 신문학 출발기에 새로운 문학 사상을 폈지

만 과감하고 건설해야 할 사회상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민주와 과학을 중국 전통에 결여된 것이었고 중국이 지향해야 할 목표였다. 최남선은 신문학 형식을 만들어 혁신적 면모를 보였지만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었다. 전통에 대해 비판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통에 대한 불신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쳐다볼 목표가 될 만한 이가 있는가, 우리 가 나아갈 길을 개척한 이가 있는가,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이가 있는가, 자기가 애쓰다 못한 것을 우리에게 물려주고 우리가 뒷받침할 만큼 자기의 영향을 끼친 이가 있는가”라고 묻고, “우리는 선배라는 것이 있지 아니 하도다”라는 단점에서 전통에 대한 불만을 느낄 수 있다.⁹⁷⁾ 바다에 관한 강조가 나타나는데 이도 역시 전통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소년』 『청춘』 과 『신청년』 이 후대의 문화 운동에 미치는 영향 비교

최남선은 『소년』 지를 창간하면서 신체시를 만들었다. 신체시는 근대 정신의 소산으로 전통과 인습을 타파하고 서구 문화를 수용하려는 근대화 운동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전통 시가와와는 다른 이질적인 요소들을 바탕으로 한다. 신체시가 고시의 울문적인 정형성에서 벗어나 ‘새로움’의 자유윝화한 시가 형태인 산문적인 속성으로 변하는 과정은 근대 시사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변화는 진독수에게의 백화운동과 맞먹는 문체상의 변화하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완전한 구어체와 글 사이의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었다.

97) 최남선, (1915) 『청춘』, 「我觀」, 17~19쪽

그리고 『소년』 잡지 의 발행 내용을 보면 교육성 볼 수 있다.

소년 제1년 제1권 목차

소년11월력/해에게서/소년에게/소년시언/가미귀의 공망/흑구자 노리/갑동이와 을남이의 상중/공육의 애송시/이습의 이약(바람과 벗, 주인할미와 하인. 공작과 학)/해상대한사/바다란 것은 이러한 것이오/가을뜻/소년한문교실/거인표류기/소년독본/소년사전(페터 대제전)/러시아는 웃더한 나라/소년훈/성신/봉길이 지리공부/살수전기/꽤소년 세계주유 시보(제1보)/소년문단/나야가라 폭포/소년통신/소년응답/편집실 통기

최남선의 학문적 관심사를 펼쳐놓은 듯한 잡지 『소년』은 일종의 ‘백과사전’을 모델로 한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단계에서도 백과전서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처럼, 최남선도 그러한 의미에서라면 백과전서파라 할 수 있다. 인용된 목차만 보아도 문학(시와 소설)을 비롯해서 자연과학, 한국사, 세계사, 한문,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문화, 인물열전, 독본, 창작 등 다양한 문학분야가 최대한 망라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소년』이라는 잡지가 처음에는 교과서를 대신할 만한 교육용 참고서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그것은 신민회와 청년학우회 등 교육 운동에 연루된 민간 계몽 단체의 ‘기관지’로 사용되기도 하여 소년뿐 아니라 성인 계층까지 독자로 포섭하는 범국민적 교양 잡지로 성장하게 된다. 『청춘』도 식민지하에서 정치와 시사문제를 다룰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진독수는 중국 5.4운동의 사령관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1915년 진독수가 창간한 잡지 『신청년』을 중심으로 문학 혁명, 유교 비판, 문자 개혁 등을 주장해서 봉건적이던 지난날 중국의 문화 도덕 윤리를 타파하며, 민주 정신과 과학 정신에 입각한 인도적이고 진취적인 새로운 문화

창조를 강조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이 운동에는 진독수, 호적, 루쉰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과 청년층에 깊은 감명과 큰 영향을 주었다. 당시 중국의 실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요구된 문화 운동이자 정치적 요구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일본의 노골적인 제국주의 침략이 직접 도화선이 되어 일어난 5.4 운동을 계기로 더욱 확대되었다.⁹⁸⁾ 신문화 운동의 시작은 진독수를 중심으로 노신, 이대조, 호적 등에 의해 창간된 『新青年』이란 잡지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신청년』의 주요 내용으로는 당시 사회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유교적인 도덕에 대한 철저한 비판, 백화 운동의 전개, 대가족 제도의 부정, 여성 해방 등의 주장을 전개했으며 전통적인 구사상을 버리고 신사교로 무장한 신청년만 이 나라를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신문화 운동은 5.4 운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 5.4 운동이란 1919년 5월 4일부터 2개월간 중국 전역에서 일어난 정치적인 반일 애국 운동으로서, 넓은 의미로는 1915년부터 1920년대 초반에 걸친 전반적인 사상 혁명이라 할 수 있는 신문화 운동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5.4운동과 신문화 운동, 이 두 운동의 지향점은 전자의 경우 정치적 운동으로, 후자는 문화적 개혁을 통해 나라를 구하고 또는 신중국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이상 내용을 보면 『신청년』과 『소년』은 그 당시 한국과 중국의 문학 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신청년』은 문학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면에 미치는 영향도 컸다. 처음에는 민주주의에 무게 중심을 두어 강조하다가 1920년대부터 마르크스주의를 적극 소개하며 중국 공산주의에 큰 영향을 끼쳤다.

98) [네이버 지식백과] 신문화 운동 [新文化運動] (Basic 고교생을 위한 세계사 용어사전, 2002. 9. 25).

III. 결론

이상 『소년』 『청춘』 과 『신청년』 을 통한 한국과 중국의 근대 계몽운동 차이점과 공통점을 볼 수 있다. 우선 그 당시 사회 상황에 보면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이었고 중국은 반봉건 반식민지이었다. 사회 불안점이 많고 열강에 침략을 많이 받았다. 이런 현실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근대 잡지는 서로 공통점이 많았다.

잡지 창간자를 보면 진독수와 최남선은 다 청년때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일본에 귀국하고 『소년』 『청춘』 과 『신청년』 을 창간했다. 잡지 이름으로 보면 『소년』 『청춘』 과 『신청년』 인데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문화의 주역을 청년으로 설정한 점에서도 공통이다. 『소년』 『청춘』 과 『신청년』 은 주로 젊은 사람 대상으로 만들었다. 젊은 사람이 국가의 희망으로 보고 국가의 미래와 운명이 젊은 사람의 손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같은 『소년』 과 『신청년』 의 창간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소년』 에서 최남선은 ‘우리 대한으로 하여금 소년()의 나라로 하라! 그리하려 하면 능히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그를 교도하여라.’ 고 하였고 『신청년』 에서는 청년이 자주적 진보적 실리적인 사람이 되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소년』 『청춘』 과 『신청년』 창간은 다 최남선 진독수 개인이 단독으로 실행하였다. 『신청년』 잡지는 처음에 진독수 자신이 직접 단독으로 편집 출간했으며 당시의 봉건 군벌의 강압 때문에 정치와 직접적인 관련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소년』 의 발행인은 최남선의 실행인 최창선이었

으나 실제로는 모두 최남선이 직접 편찬을 주관했었다.

『소년』과 『신청년』을 발행하다가 새로운 문학을 만들었다. 최남선은 『소년』잡지를 통하여 신체시를 만들고 새로운 근대문학을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학의 문호를 열려는 의도로 『소년』잡지를 편집하였다. 진독수는 호적(胡適)의 「문학 개량주의」를 『신청년』에 발표하여 문학혁명, 즉 백화 문학을 제창하였다.

그 때 두 분 다 젊은 사람이었다. 잡지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외국 우수 작품과 진보 사상 번역문이었다. 잡지 발행과정 중 폐간 당했다. 진독수는 공산당과 결별하는 것⁹⁹⁾과 최남선이 변절하여 부정적 평가를 받는 점과 친일파로¹⁰⁰⁾ 보는 점도 같다. 초기에 차이점이 많지 않지만 잡지의 성격에서 후기에는 차이가 많이 났다. 잡지 창간초기 주요 내용은 민주주의이었고 후기에는 『신청년』잡지는 마르크스주의로 바꿨다. 1919년 5월4일 중국의 북경대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일어난 5.4 운동은 반제국주의와 반봉건주의 운동으로서 중국의 사상계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특히 진보적 지식인들의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의 사상적 무기로써 마르크스주의의 수용은 5.4 운동을 계기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당시 『신청년』잡지에 참여했던 지식인들도 새로운 사상으로써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면서 적극적으로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신청년』잡지는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주요한 선전의 장을 마련하였다. 『신청년』잡지는 발간을 거듭하면서 중국의 상황변화와 함께 편집자와 필진이 바뀌고 따라서 그 내용의 계몽성도 변화하게 되었

99) 中山艦사건으로 국민당에 자퇴하여 공산당과 갈등 새기고 공산당과 결별했다.

100) 최남선은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거치면서 불함문화권 내에서 일본 문화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일본이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을 바꾸었다.

1939년에는 만주국 건국대학의 교수가 되어 후일 친일 논쟁의 빌미가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최남선 (잡지창간호, 국립중앙도서관)

다. 『신청년』 잡지의 계몽성은 당시 중국사회의 사상적 변화를 상징하였으며 또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소년』도 그 시대에 다양한 근대 지식을 소개했는데 문학 작품은 그러한 근대 지식의 하위 범주로 배치되었다. 『신청년』과 『소년』 잡지는 근대 문학 운동과 계몽운동 중 큰 영향을 미쳤다. 두 잡지는 전문적인 학술 이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반 청년들을 계몽하고 혁명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대중 잡지였고 한국과 중국의 문학 계몽의 역사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최남선과 진독수는 잡지를 창간하는 목적이 청년들을 계몽하고 혁명적인 의식을 고취하려 했던 목적의식도 공통점이다. 두 사람이 다 청년의 힘으로 나라를 구하는 것을 주장한다. 청년들을 계몽하기 위해 서구 문명을 번역해서 청년들에게 계몽시키고 국가와 자신의 관계를 가르쳐준다.

최남선은 『소년』 『청춘』을 통해 새로운 문학 형식을 만들었다. 신체시는 한국근대 문학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비관과 옹호 다 있지만 호적의 백화문 운동이 중국 근대 문학에 준 영향이 같다. 이들은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다. 즉 최남선의 문체 변화는 성격이 강하게 남아 있었고 백화운동도 완전한 문맹퇴치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진독수의 『신청년』은 중국 근대 문학 영역에 큰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신문화 운동을 발기도 했었다. 그리하여 『신청년』은 전통 비판도 했었다. 『신청년』 창간초기 부터는 유교 사상과 공교 문화를 비판하였다. 신문화를 제창하기 위해 과학과 민주를 옹호하였다. 그 당시 중국은 봉건사회 끝나는지 얼마 안 돼서 유교 사상이 민중에게 주는 영향이 많이 남았다. 원세개도 제제 운동 위해 공교가 국교로 만들려고 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진독수 호적등 신지식인들은 『신청년』을 통해 사람들에게 신사상을 전해 주었다. 호적은 백화문 운동을 시키고 문어문을

쓰지 않고 백화로 쓰자고 했었다. 그 이후 백화소설 『광인일기』 『아Q정전』 등 우수 작품이 나왔다.

『소년』과 『신청년』을 연구해서 계몽잡지가 사회진보, 근대문학발전, 사람들의 사상에 대해 중요하고 큰 영향을 주었다. 두 잡지는 시간적으로 보면 다 전환기에 나타났고 외국 침략을 받으면서 애국 계몽 운동 시작하는 시기였다. 『소년』은 『신청년』보다 7년 동안 이르게 나타났지만 발간한지 3년 밖에 안됐고 폐간을 당했다. 소년은 폐간 당했고 『청춘』잡지가 나타났지만 4년 지났고 또 폐간 당했다. 『신청년』은 발간한지 11년이 됐고 공산당의 기관지로 됐다. 그 당시 민중에게 준 영향이 큰 것뿐만 아니라 공산당에 준 영향도 컸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공산당의 정치 쪽에 취득한 성과가 커졌다. 『신청년』이 대학생에 준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북경에서 시작한 54운동이 성공했다. 『소년』보다는 『신청년』이 근대 계몽기간에 준 공헌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진독수는 전통 비판뿐만 아니라 5.4운동도 주도했었다. 나중에 중국공산당의 기관지로 되고 마르크스주의 관한 주요한 선전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보면 『신청년』은 근대 문학에 미치는 영향 큰 것뿐만 아니라 정치면에 미치는 영향도 컸다. 『소년』과 『청춘』은 물론 시기적으로는 『신청년』에 앞서 발간되었으나 식민지 치하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참고문헌

한국문헌:

김윤식. (1990) 『육당이 이 땅에 오시 지 百周年:1890-1957-1990』 『六堂與新文學』 六堂 崔南善先生 誕辰百周年紀念文集, 東明社

김신정. 깊은샘 (2003) 『한국 근대문학 양식의 형성과 전개』 『한국 근대자유시의 형성과 의미』 상허학회

김용직. (1981) 『「해에게서 소년에게」의 이해』 『최남선과 이광수의 문학』 새문사최규진. (2007) 『근대를 보는 창20』 서해문집

전윤균. (2004) 「육당 최남선의 출판행위와 『소년』 지 연구」 出版文化學會報《出版雜誌研究》 第十二卷 第一号 通卷 第十二号

김지녀. (1992) 「최남선 시가의 근대성-철도와 바다에 나타난 계몽적 공간 인식」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김진아. (2011) 「중국 근대 신청년 잡지 속의 페미니즘 번역 작품이 중국사회와 번역에 미친 영향」 『번역학연구』 12권 3호 한국번역학회한기형. (1999) 「1910년대 신소설에 미친 출판·유통환경의 영향」 『한국학보』 22권 3호

김홍중. (2002) 『清末 新政期の 研究-江蘇省의 新政과 紳士層』. 서울대학교출판부

김학주·이동향. (1986) 『中國文學史 (II)』,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류시현. (2009) 『최남선 연구』 역사비평사

류시현. (2006) 『최남선 평전』 서울: 한겨레출판(주)

류시현. (2005) 『최남선의 근대 인식과 조선학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
논문

서영채. (1998) 『최남선 시가의 근대성에 관한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13권 0호

신일섭. (1991) 『신청년 잡지의 성격변화연구』 <역사학연구(구전남사학)>5권0호

이상구. (2008) 「辛亥革命時期 陳獨秀의 『安徽俗話報』 啓蒙運動」
<계명사학> 19권0호

전성곤. (2008) 『근대 조선의 아이덴티티와 최남선』 서울: 제이앤씨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조변함. (2000) 「19세기 후반 중·일의 계몽사상: 嚴夏과 福澤論吉」. 『震
檀學報』

전동준. (1997) 「白話運動 시기의 연문 일치론에 대한 검토」 『中國語
文學誌』 중국어문학회

홍일식. (1981) 「육당의 생애와 문학」 『최남선과 이광수의 문학』 새문
사

한기흥. (2002) 「최남선의 잡지 발간과 초기 근대문학의 재편-『소년』
『청춘』의 문학산적 역할과 위상」 『대동문화연구』 45권 0호

중국문헌:

陳獨秀. (1915) 『新青年』

- 陳獨秀. (1915) 「敬告青年」 『青年雜誌』 1권1호
- 庄森. (2006.6) 『飛揚跋扈爲誰雄-作爲文學社團的新青年社研究』 (上海：中國出版集團東方出版中心)
- 沈寂. (1980) 「陳獨秀和『安徽俗話報』」 歷史論議
- 王澤華 許祖范. (1985) 「『安徽俗話報』評述」 『安徽史學』 (1985年5期)
- 馬光仁. (1986) 「陳獨秀与『安徽俗話報』」 新聞大學
- 李繼承. (1999年3期) 「安徽期刊園地中最早綻開花蕾-介紹『安徽俗話報』」 『太湖職業技術學院學報』
- 吳悅. (2005年2期) 「陳獨秀与『安徽俗話報』」 大學圖書情報學刊
- 陳万熊. (1982) 『新文化運動前的陳獨秀：1875~1915』 中文大學出版社.
- 申一樊. (1991) 「『安徽俗話報』研究」 2005新文化運動之前陳獨秀的活動」 『湖南大學論文集』 安徽大學碩士學位論文.
- 李宗一. (1989) 『袁世凱傳』 (北京：中華書局)
- 嚴夏. (1981) 『國民人物傳』 第三卷 (北京：中華書局)
- 胡適. (1941) 「文學改良謠議」 『中國文學大系』 第一集 上海良友復興圖書印刷公司,
- 趙家璧. (1935) 『中國新文學大系』 第一集

周策縱 著， 曹秉汗 譯，(1980) 『5·4운동』 (서울: 광민사, 1980)

丁金林 主編.(1990) 「第六章 五四時期的新聞事業」 『中國新聞事業史』
中國武漢：武漢大學出版社，

王京生.(1987.1) 「『新青年』 再評價」，『中國現代史』 (北京：中國人民大學)

唐宝林 林茂生.(1988) 『陳獨秀年譜』 上海：上海人民出版社

史濤.(2008) 「新青年出場的歷史資源探析」 西北大學 碩士論文

董秋英 郭漢民.(2001) 『近代史研究』 山東大學 博士論文

일본문헌

藤田正典，久保田交次，鳩本信子(1977)編 『新青年宗目録五四運動文獻目録』 (東京：汲古書院，1977)

藤田正典 (1976) 『中國共產黨新聞雜誌研究』

井上哲次郎 (1927) 「신체시론」 『제국문학』 3권 1호

근대잡지를 통한 계몽-중국과 한국의 비교연구

류명썬

부경대학교대학원신문방송학과

요약

계몽은 인류와 사회의 진보과정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중국과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 계몽이 국가와 민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근대 중국과 한국은 여러 면에 비슷한 점이 많다. 사회체제 문화 당시 사회 환경 등등.

양국의 계몽운동에 제일 큰 비슷한 점이 근대 잡지를 통한 신지식, 과학사상, 민주사상 등 민중에게 홍보해서 애국 계몽 운동에 참가하게 시킨다. 최남선은 1908년에 한국 최초 근대 계몽잡지 『소년』을 창간했고 1914년에 『청춘』을 창간했다. 진독수는 1914년에 중국 최초 계몽 잡지 『신청년』을 창간했다. 한국과 중국의 이런 근대 잡지는 주로 신지식인 층이 만들었다.

잡지의 창간자의 생애를 보면 많은 비슷한 점을 볼 수 있다. 잡지내용의 비슷한 것도 많은데 제일 비슷한 것은 서구문명에 대한 태도다. 『신청년』과 『소년』 『청춘』은 서구문명을 번역해서 민중에게 신사상과

신지식을 홍보했었다. 차이점은 주로 전통비판과 영향력 비교에 차이 났다. 『신청년』은 처음부터 공자사상과 유교를 비판 했었다. 그리고 신문학을 홍보하기 위해 백화문 운동에도 참가했었다. 최남선은 신문학 형식을 만들었고 전통에 대해 비판적이었을 것으로 주장되지만 명시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다.

